



<아트뷰>
뉴스레터 구독하기

artv

2025 December & 2026 January

Vol. 184

성남문화재단

특집

성남문화재단 송년 공연 모음

인터뷰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기타리스트 박규희

스케치

2025 성남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트렌드

근본이즘, 본질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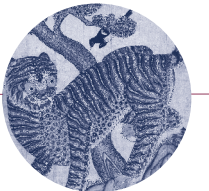
ar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2025 December &
2026 January
Vol.184

SNCF

Sea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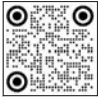
Greeting



C

ONTENTS

2025 December & 2026 January
Vol.184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표지 사진: © 와이즈발레단 | © Sang Wook Lee | © 국립중앙박물관

02 인트로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SPECIAL

08 미리보기

성남문화재단 송년 공연 모음

12 인터뷰 1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16 인터뷰 2

기타리스트 박규희

VIEW

22 미리보기 1

베르메르 레플리카전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

26 미리보기 2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듀오 리사이틀

28 미리보기 3

발레 <호두까기 인형>

30 미리보기 4

마티네 콘서트 12월

32 다시보기 1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38 다시보기 2

성남페스티벌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

44 스케치

2025 성남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CULTURE +

54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58 리포트

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이모저모

64 트렌드

근본이즘, 본질을 찾아서

SEONGNAM +

72 성남의 예술가

시각예술가 이지연

80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85 12·1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91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2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세계악기전시관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 2025년 12+2026년 1월호

통권 184호(비매품) 2025년 12월 1일 발행 |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윤정국 | 편집인 장동환
기획·편집 손세은 seson@snart.or.kr | 교열 이지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30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 웹진 바로가기



SNART 20th Anniversary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랑데뷰 내추럴, 미스틱, 그린라이트)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 | Seongnam: Culture and Arts News | |
|---|--|---|--|
| <p>소비자 친화적 문화예술 서비스: 성남문화재단, '2025 한국브랜드 소비자평가 대상' 수상</p> | | <p>독서로 성장하는 조직문화: 성남문화재단,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획득</p> | |
|  <p>© 최재우</p> <p>성남문화재단 전경</p> | |  <p>© 최재우</p> <p>성남문화재단 사내도서관 '스마트SN라운지'</p> | |
| <p>성남문화재단이 '2025 한국브랜드 소비자평가 대상'에서 2023년에 이어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p> <p>한국브랜드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한국브랜드 소비자평가 대상'은 매년 소비자 만족도·충성도, 브랜드 신뢰도·경쟁력 등의 다양한 지표를 공정하게 평가해, 고객 만족 경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선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한다.</p> <p>올해 평가에서 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20년간 구축해 온 국내 대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위상과 세계를 향한 '글로벌 문화공간'으로서의 성과를 인정해 문화예술 부문 1위로 선정했다.</p> <p>성남문화재단은 2004년 출범한 이래 공연, 전시, 교육, 축제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복합문화예술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성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폭넓은 장르의 기획 프로그램, 국내외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는 한편, 지역 유일의 공공미술관인 성남큐브미술관을 통해 다양한 기획전시, 지역예술을 조명하는 전시로 성남의 독창적인 미술 문화를 만들어 왔다. 또한 시민과 지역예술인을 위한 문화정책, 예술인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산에 주력하며 '시민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왔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성남의 대표 축제 '성남페스티벌'은 첨단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로 성남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p> <p>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년간 국내 대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예술로 공감을 전하고 문화로 소통해 온 성남문화재단의 노력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문화공간'으로 도약하고, 예술·기술·사람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 도시 성남'의 구현을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p>  | | <p>성남문화재단이 '2025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획득했다.</p> <p>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직장인의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독서 친화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p> <p>재단은 직장 내 독서 문화 활성화와 직원의 독서 활동 장려 등을 통해 독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8월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내에 사내도서관 '스마트SN라운지'를 개관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p> <p>또한 대표이사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독서에 참여하며 이를 주제로 토론하는 활동 등을 통해 책을 매개로 한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번 인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p> <p>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책과 동행하는 성남문화재단으로서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p> <p>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직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연장 로비와 성남아트센터 2층 유희 공간 등을 활용해 낮 시간대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접하며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독서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p> | |

|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 | Seongnam: Culture and Arts News |
|---|--|---|
| 지역사회·예술·기업 상생 프로젝트: 놀유니버스 후원 전시 <향일군락> | | 성남시립교향악단 & 성남시립합창단 <2025 송년음악회> |
| <div></div> <div>기업 후원 전시 <향일군락></div> | | <p>성남시립교향악단과 성남시립합창단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송년음악회가 12월 9일(화)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김성진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첼리스트 송영훈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 어울리는 차이콥스키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4악장을 들려준다. 합창에는 성남시립합창단과 함께 수원시립합창단, 분당구여성합창단이 참여한다.</p> <p>일시 12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29-4809</p> <div></div> |
| <p>성남문화재단이 관내 기업인 놀유니버스(대표이사 배보찬)와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상생의 길을 열었다.</p> <p>재단은 지역 예술가의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지원하고,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지역 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제안해 왔다. 이에 놀유니버스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첫 결실로 지역작가 이종민과 송효근의 인터랙티브 키네틱아트 전시 작품 <향일군락Heliotropic Dwelling>을 지난 11월 15일(토)부터 29일(토)까지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전시공간에서 선보였다.</p> <p>이번 전시는 성남문화재단의 '모든예술31 성남' 예술기술 융합 창작지원 분야 지원사업으로, 놀유니버스의 후원을 통해 실현됐다. 특히 재단이 지역 예술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매개기관으로 추진한 첫 성과이자, 지역 기업인 놀유니버스가 제1호 후원기업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p> <p>놀유니버스의 후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예술가에게 실질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예술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가치를 실현한 선도적인 사례다. 이는 문화재단과 예술가, 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상생의 출발점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적 연대 가능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p> <p>전시 작품 <향일군락>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겪는 일조권 부족 문제를 생태학적 시선과 기술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설치 작품이다. 성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작가는 바다 생물인 따개비의 생존 전략에서 영감을 받아, 도시 공간의 밀도와 생존 조건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다.</p> | | <p>경기지역 미술 흐름을 읽다: 2025 경기향토작가 초대전 <비상> 개최</p> <p>(사)한국예총 성남지회(회장 송위혁)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지부장 김보연)가 주관하는 2025 경기향토작가 초대전 <비상飛上>이 12월 2일(화)부터 10일(수)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사)한국미술협회 경기·성남지부 추천작가들의 회화와 조각, 공예,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소개해, 지역의 미술 지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p> <p>일시 12월 2일(화)~10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문의 (사)한국예총 성남지회 031-753-1020</p> <div></div> |

2025 Seasons' Greetings

송년의 달,
겨울빛 선율 속으로

08 미리보기

성남문화재단 송년 공연 모음

12 인터뷰 1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16 인터뷰 2

기타리스트 박규희





성남문화재단 송년 공연 모음 겨울,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차분히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겨울,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과 허전함을 아름다운 음악과 낭만적인 무대로 다시 따뜻하게 채워 보는 건 어떨까. 올겨울에는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들이 우리의 연말을 풍성하게 물들이며 새로운 감동의 순간을 선사한다. 2025년의 끝맺음을 함께할 예술적 순간들을 살펴본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겨울을 물들이는 현의 선율

12월의 시작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연다. 파가니니²⁰¹⁵와 시벨리우스²⁰²²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서 K-클래식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양인모는 시적 감성이 깃든 사운드와 완벽한 테크닉으로 호평받는 연주자다. 12월 6일(토), 그가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12개의 환상곡> 전곡 연주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무대를 찾는다. 바흐 소나타·파르티타와 더불어 바로크 시대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특히 연주자의 자유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환상적 양식'은 그간 양인모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꾸준히 탐구해 온 바로크 음악의 역사주의 연주와 성과를 보여 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오늘날 가장 지적이고 독창적인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제레미 텐크와 6년 만에 듀오 리사이틀로 한 무대에 선다. 12월 20일(토) 성남아트리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B'를 주제로 바흐Bach와 베토벤Beethoven, 베를리오즈Berlioz까지 바로크와 고전, 낭만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비올라 솔로 버전으로 편곡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과 베토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 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리스트가 비올라를 위해 편곡한 베를리오즈의 걸작 <이탈리아의 헤롤드>까지 독주, 실내악, 오케스트라 작품 모두를 아우르는 용재 오닐의 음악성이 돋보인다. 개성 넘치는 음색의 제레미 텐크가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도 기대해 볼 만하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연말

클래식을 처음 만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 여행도 펼쳐진다. 12월 13일(토)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키즈 콘서트 <플라잉 심포니>는 정통 클래식 연주와 3D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무대로 어린이 관객들을 환상 속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초대한다. 1부에서는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로 오케스트라 악기의 특징과 소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인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3D 영상과 이야기로 새롭게 풀어낸다. 지휘자 이병욱이 이끄는 디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고 자매 피아니스트 전현주·전희진으로 구성된 피아노 듀오 베리오자가 협연한다.

겨울에 어울리는 발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떠오르는 발레는 단연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소녀 클라라의 하룻밤 모험을 담은 이 작품은 매년 이맘때 전 세계 극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골 레퍼토리다. 12월 21일(일) 와이즈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오페라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다. 추운 겨울날 무대 위에 내리는 하얀 눈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꿈속 호두 왕자와 함께 눈의 나라로 떠나는 환상의 여정, 그리고 과자 인형들이 보여주는 세계 각국의 춤까지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의상, 박진감 넘치는 군무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플라잉 심포니> 3D 애니메이션

가족,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싶다면,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추천한다. 1부는 감미로운 캐럴 '실버벨'로 시작해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곡들이 이어지고,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과 리로이 앤더슨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지휘자 최수열이 한경arte필하모닉과 호흡을 맞추고,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협연해 색다른 음색으로 무대에 생동감을 더

한다. 공연은 12월 24일(수), 콘서트홀.

빛나는 송년의 밤

2025년의 마지막 밤은 <성남아트센터 제야음악회>가 장식한다. 장운성이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과 타레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소프라노 황수미와 테너 박승주가 우리 가곡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들려준다. 특히 올해에는 2026년의 첫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더해져 관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해의 시작, 음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떨림과 깊은 여운으로 남는다. 늘 곁에 머무는 음악처럼 다가올 새해에는 모두의 일상에 희망과 위로의 빛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란다.



© Ho Chang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텔레만의 사색, 카로두스의 자유 그리고 지금의 음악

Inmo-Yang.

© Jino Park

음악가들에게는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음악적 영감이 된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2025년은 음악적 영감으로 가득 찬 한 해였다. 그는 올해 30대가 되었고, 스트레튼 소사이어티^{Stretton Society}로부터 파르네리 델 제수 '카로두스'를 대여받아 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파가니니²⁰¹⁵와 시벨리우스²⁰²² 두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연주자로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 가는 시간이었다. 그 끝에 양인모가 선택한 음악은 바로 바로크 시대 작곡가 텔레만의 무반주 환상곡이다. 오는 12월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오를 그와 이메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 정소연 월간 <스트라드> 수석기자

30대에 접어든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새 악기를 손에 쥐었다. 그가 사용하기 시작한 악기는 1743년산 파르네리 델 제수 '카로두스 Carrodus'다. 이 악기는 약 2천만 달러(약 280억원)의 가치를 지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꼽힌다. 또한 역사적으로 니콜로 파가니니가 소유했던 악기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가 파가니니의 악기를 손에 쥐었다. 이는 그 자체로 화제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인모니니'라는 그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가 이 악기로 선택한 첫 무반주 리사이틀의 레퍼토리는 텔레만 12개 환상곡 전곡이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은 기네스에 오

를 정도로 다작^{多作}한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독일 태생이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의 음악 양식을 습득해 융합하고, 바로크와 고전 시대를 잇는 양식을 선보이며 당대에는 바흐보다 더 잘 알려진 작곡가였다. 텔레만 환상곡은 1735년 출판된 작품으로, 외적

인 기교보다는 바로크 음악의 다성적 구조와 내면적 대화에 집중하는 사색적인 곡이다. 사실 이 환상곡 12개는 무반주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대부분의 연주자가 무반주 작품으로 바흐, 이차이, 파가니니를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로, 양인모는 과감히 30대를 열었다.

'인모니니' 또는 '인벨리우스'라는 과거의 정체성, '카로두스'라는 악기의 상징성, 그리고 '텔레만'이라는 레퍼토리는 30세 양인모의 현재를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지금의 그는 콩쿠르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구축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다.

무반주 리사이틀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큰 도전입니다. 연주자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도전하는 바흐나 이차이 무반주 전곡 연주가 아니라 텔레만 환상곡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바흐와 이차이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연주해 왔지만, 텔레만 환상곡은 올해 초 처음 악보를

접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이전의 습관과 취향에 얽매이지 않은 지금의 제 나뉠대로의 해석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흐나 파가니니 무반주 작품들과 비교해서 텔레만 환상곡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주자로서 이 곡을 해석하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

12개의 환상곡 속에 담긴 텔레만 고유의 성격을 찾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과감히 섞고, 국경을 넘나들며 양식을 자유롭게 다루는 그의 음악적 언어에서 다른 바로크 작곡가와 구별되는 신선함을 느꼈죠. 이번 연주를 통해 텔레만이 단순히 바로크와 고전을 잇는 과도기적 작곡가가 아니라 독창적이고 생명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음악가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텔레만은 왜 이 작품에 ‘환상곡’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단순히 형식에서 탈피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텔레만은 1730년대 여러 독주 악기를 위해 쓴 환상곡들을 통해, 바로크를 상징하던 웅장한 대위법과 당시의 현대적이고 우아한 갈란트 형식을 융합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선율 악기로 단순함과 복잡함을 함께 나타내고자 한 것이 ‘환상’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텔레만의 12개 환상곡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12개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 12곡 중에서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느끼거나, 연주하면서 가장 마음이 가는 곡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 작곡가는 6번 환상곡에 가장 많은 정성을 쏟은 것 같습니다. 다른 환상곡보다 더 견고한 형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섬세하고 연약한 캐릭터가 느껴집니다. 12곡 중 ‘심장’에 해당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크 음악을 연주할 때, 바로크 활이나 양의 창자를 꼬아 만든 거트현을 사용하는 등 옛 시대의 연주 방식을 따르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시대연주를 재현하는 것이 이번 연주의 핵심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와 작품을 둘러싼 관점들을 종합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유용하고 공감되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1743년에 제작된 파르네리 델 제수 ‘카로두스’로 연주하게 됐습니다. 이 악기는 어떤 목소리를 가졌나요? 또 다른 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그는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대여받아 1718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보스토니안’으로도 연주한 경험이 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고운 모래발을 걷는 느낌이라면 파르네리 델 제수가 만든 카로두스는 표면이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걷는 느낌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파인 다이닝이라면 제 악기는 (아주 맛있는) 길거리 음식에 더 가깝습니다. 균형보다 대비를, 아름다움보다 자유를 추구하는 악기입니다.

카로두스와 텔레만의 환상곡은 잘 어울리는 조합인가요? 파르네리 델 제수의 악기로 이 섬세한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점이 있는지, 혹은 악기가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악기의 음량 폭이 넓어서 색깔을 만들기가 편하고, 낮은 현과 높은 현의 음색 차이가 뚜렷해서 여러 성부를 구분해야 하는 푸가 악장을 연주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섬세한 바로크 음악에 입체감을 더해 주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 협연과 달리, 무반주 리사이틀은 연주자 혼자 모든 것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어떤 소리 혹은 경험을 가져가길 바라시나요?

올해 초부터 매일 텔레만으로 연습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의 통주저음을 잠시 잊고 자신만의 멜로디로 삶의 템포를 찾아보는 이 여정의 끝에서 많은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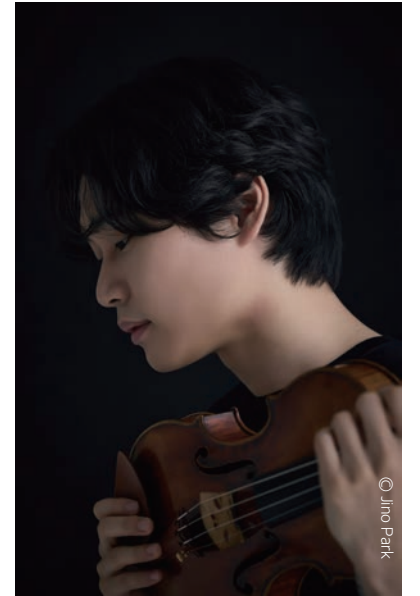
이번 리사이틀 주제는 환상곡Fantasia입니다. 콩쿠르에 도전하며 치열하게 보낸 20대 때 상상한 30대 양인모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리고 지금, 그 환상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치열한 점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치열해야 하는 이유가 달라졌을 뿐이죠. 예전에는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

키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토록 원하던 기회들로부터 저의 음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기회가 많아질수록 시간을 다루는 음악이 도리어 시간에 쫓기게 되고, 그렇게 다급해진 음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의 본질을 지켜 낼 순수한 열정을 항상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 텔레만 프로젝트가 30대의 예술 세계를 여는 중요한 무대 같습니다. 30대의 양인모는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되길 바라며 나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 변하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르고 그것이 저의 음악과 끊임없이 대화하도록, 깨어 있는 음악가로 남았으면 합니다.



기타리스트 박규희

마음을 흔드는 손끝의 트레몰로

기타는 대중적인 악기이지만, 의외로 클래식 공연장 무대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작 클래식 기타 작품들은 ‘어디서 들어 본 노래’임에도 작곡가나 곡명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익숙하지만 낯선, 이 미묘한 매력의 지점에 닿아 있는 클래식 기타의 존재감을 근래 한층 더 증폭시킨 이가 있으니, 바로 기타리스트 박규희다. 작고 해사한 웃음 뒤에 국제 클래식 기타계를 장악한 실력이 숨어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반전 매력’에 영락없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연주자. 그가 올해의 마지막 날 열리는 <성남아트센터 제야음악회> 무대에서 연주할 대중 친화적 두 작품에 대해 직접 들려준다.

글 허서현 월간 <객석> 기자

우선, ‘클래식 기타’와 ‘통기타’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두 악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줄의 종류와 그로 인한 소리의 성격입니다.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을 사용해 부드럽고 풍부한 배음을 만들어 내는 반면, 통기타(어쿠스틱 기타)는 금속 줄을 사용해 밝고 강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감상하실 땐 손가락으로 직접 울리며 내는 섬세한 음과 배음의 여운, 소리의 결을 느끼는 데 집중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현재 사용 중인 악기는 빈^{Wien} 시절부터 쓰던 악기인가요?

네, 2009년에 명기 제작자 다니엘 프리드리히가 만든 악기입니다. 특히 배음이 커서 울림이 굉장히 풍부하죠. 빈 유학 시절, 제 스승이신

알바로 피에리 교수님께서 저를 위해 직접 탁해 제작해 주신 아주 특별한 악기예요. 이런 특별한 기타를 가진 것은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예원학교, 도쿄 음악대학, 빈 국립음악대학, 그리고 스페인 알리칸테 음악원 기타 마스터 과정까지, 각각 무엇을 배웠다고 느끼시나요?

한국과 일본에선 기본기와 정확함, 세밀함을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빈에서는 기타를 넘어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중시했죠. 스페인에선 기타 고유의 매력과 정서를 자연스럽게 살리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받은 교육은 지금도 제 연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Kyuhee Park



© Ho Chang

두 스페인 작곡가의 명작

이번에 연주할 아랑훼즈 협주곡은 TV 영화 프로그램 <토요명화>의 오프닝 곡으로 사용될 만큼 익숙한 작품이지만, ‘기타’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은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하지요.

기타의 매력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타 소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페인의 정서가 묻어 있어 더 사랑받는 것 같고요. 다만, 오케스트라와 음량과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리허설 과정에서 오케스트라와 이를 섬세하게 맞춥니다. 마이크를 사용하긴 하지만, 최대한 악기 그 자체의 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는 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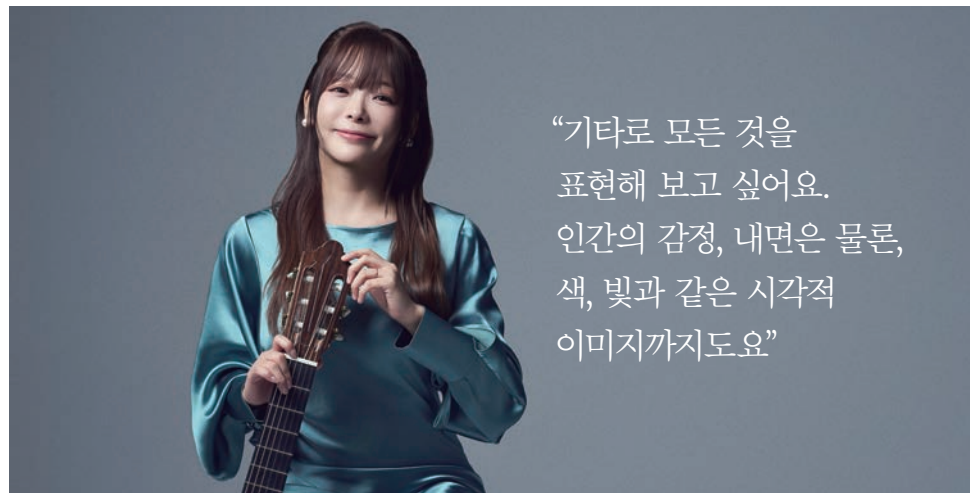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역시 매우 익숙한 선율입니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트레몰로(한 음

을 빠르게 반복하는 주법)는 마치 분수에서 뿜어 나오는 물줄기가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을 그리듯, 섬세한 장면을 소리로 표현합니다. 기타라는 악기로 음악 속 수많은 풍경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죠. 타레가는 당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주법을 탐구하며 기타의 표현 스펙트럼을 크게 확장한 인물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클래식 기타의 기초가 마련됐죠.

두 작곡가 모두 스페인 출신입니다. 기타와 스페인은 왜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을까요?

스페인은 오래전부터 기타가 생활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던 곳입니다. ‘국민악기’ 같은 존재랄까요? 플라멩코와 함께 기타 문화가 깊게 자리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훌륭한 작곡가와 연주자가 다수 탄생했고, 그렇게 오늘날의 기타 음악의 중심지 ‘스페인’이 된 것이죠.



“기타로 모든 것을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인간의 감정, 내면은 물론, 색, 빛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까지도요”

기타로 마음의 풍경을 건너다

오늘날 ‘클래식 기타’의 대표적 연주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중한 실력, 벨기에 프렐탕 콩쿠르 최초의 아시아·여성 우승 등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주자로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요?

여러 조건과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 지금의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기존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던 분들이 기타를 접하며 플레이리스트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많은 분이 기타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에서 좋은 연주를 많이 선보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결국 첫째도, 둘째도, 그다음도 연습뿐이에요.

이 정도면 음악가의 진짜 명칭은 ‘연습가’가 아닐까 싶네요.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 기타를 시작한 건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기타를 취미로 배우셨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시작하게 된 거죠. 기타의 가장 큰 매력은 소리인 것 같아요. 다정하고 소박한. 작은 울림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죠.

기타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지점은요? 기타로 모든 것을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인간의 희로애락 같은 감정, 해탈이나 허전함 같은 내면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풍경, 색, 빛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까지도요. ‘기타 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표현된다’라는 순간을 듣는 이들이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들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본인에게 어떤 시간이었나요?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올해는 제게 특별했습니다. 데뷔 15주년을 맞았거든요. 한국과 일본에서 기념 공연을 열며 처음 연주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떠올린 한 해였습니다. 연주 여행이 많아 새로운 무대와 관객을 만났고요. 특히 베트남 하노이 공연이 기억나요. 저를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 했던 기타 유망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 값진 한 해를 음악으로 마무리하며, 관객들도 각자의 소중한 순간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몽글몽글한 추억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마음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타레가는 스페인 그라나다의 붉은 성 알함브라를 보고 아련한 선율을 담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작곡했다. 14세기부터 그 자리를 지킨 궁전을 바라보며 그가 떠올린 것이 궁전의 유구한 역사 속 서글픈 사연이었는지, 이루지 못한 애달픈 사랑의 감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기타의 트레몰로 소리는 분주함으로 날 선 마음을 녹이고, 멋진 풍경을 보고 선 타레가의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심금에 완벽히 스며드는 박규희의 연주로 그 낭만적 정취에 젖어 든다면, 이보다 더 풍성한 연말의 순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12월 31일(수) 오후 10시, <성남아트센터 제야음악회>에서 박규희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앙트레 콘서트

‘앙트레(Entrée)’는 프랑스어로
‘시작’, ‘개시’라는 의미로, 공연예술 입문 관객을 위한
성남아트센터의 브랜드 시리즈입니다.



12.13 Sat 15:00

콘서트홀

**플라잉
심포니
키즈 콘서트**

Flying Symphony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4 Wed 19:30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예매 NOL 티켓 1544-8117

VIEW

미리보기

베르메르 레플리카전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듀오 리사이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마티네 콘서트 12월

다시보기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성남페스티벌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

스케치

2025 성남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P

R

E

V

I

E

W

베르메르 레플리카전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

빛으로 일상의 고요한 순간을 포착한 화가 베르메르

파란색과 노란색의 머릿수건을 쓰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한 젊은 여성이 입술을 약간 벌린 채 뒤를 돌아본다.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1632~1675)의 대표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Girl with a Pearl Earring)>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묘한 아우라가 느껴진다.

글 황희경 연합뉴스 기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광고나 패러디 등에도 자주 등장하며, 제목은 모르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신비로운 분위기로 '북유럽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이 작품을 그린 베르메르(네덜란드어 표기법으로는 얀 페르메이르)는 생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화가였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작품이 재발견되면서, 오늘날에는 렘브란트나 초상화의 대가 프란츠 할스 등과 함께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베르메르가 활동했던 17세기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로 상징되는 이른바 '황금시대(Golden Age)'를 구가했다. 부유한 상인들의 후원 속에 미술 또한 꽃을 피웠고, 그중에 베르메르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작품은 36점에 불과하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Girl with a Pearl Earring, 1665, Oil on canvas, 44.5×39cm, Mauritshuis, The Hague

한자리에서 만나는 베르메르의 회화 세계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12월 12일부터 시작하는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은 베르메르 사후 350주년을 기념해, 현존하는 베르메르의 작품 36점을 레플리카로 선보이는 전시다.

베르메르의 그림들은 대부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빛’이다. 빛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담아낸 그의 그림을 두고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베르메르가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라는 광학 장치를 이용했을 것

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라틴어로 ‘어두운 방’을 뜻하는 카메라 옵스큐라는 작은 구멍을 통한 빛이 어둠 속 벽에 뒤집힌 이미지로 투사되는 장치이다. 베르메르가 이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눈은 마치 이 장치를 통해 세상을 본 듯 빛이 흩어지고 모이는 찰나의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모두 원본이 아닌 레플리카^{replica}다. 레플리카는 작품의 보존이나 교육을 위해 원본을 복제한 것으로, 원본인 것처럼 속이는 위작과는 구별된다. 물론 다른 미술 작품들처럼 그림은 원화로 보는



회화의 기술 The Art of Painting, 1666~68, Oil on canvas, 120×100cm, 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



우유 따르는 여인 The Milkmaid, 1658~61, Oil on canvas, 45.5×41cm, Rijksmuseum, Amsterdam



델프트 전경 View of Delft, 1660~61, Oil on canvas, 98.5×117.5cm, Mauritshuis, The Hague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한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란 쉽지 않기에, 레플리카가 활용된다. 박물관에서도 유물 보존을 위해 전시 대체품으로 레플리카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조잡하게 제작된 레플리카도 더러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원화의 색감과 질감까지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다. 이번 전시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베르메르의 36점 전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레플리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전시는 7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마르타와 마리아 집의 그리스도 Christ in the House of Martha and Mary>^{1654~55} 같은 초기 종교화부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함께 또 다른 대표작인 <우유 따르는 여인 The Milkmaid>^{1658~61}, 그가 태어나고 평생을 살았던 네덜란드 델프트의 풍경을 담은 <델프트 전경 View of Delft>^{1660~61} 등을 볼 수 있다.

베르메르의 그림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함께 소개된다. <열린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 Girl Reading a Letter at an Open Window>^{1657~59} 속 뒷벽에 그려진 큐피드가 베르메르 사후 덧칠로 가려져 있었지만,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져 정밀 복원된 일화, 1990년 미국 보스턴의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박물관에서 그의 작품 <콘서트 The Concert>가 도난당해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사건, 나치 독일의 2인자 헤르만 괴링이 소장했던 베르메르의 <엠마오의 만찬 The Supper at Emmaus>이 사실은 위작이었다는 이야기 등이다. 이 중 도난 사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베르메르 레플리카전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

일시 12월 12일(금)~2026년 3월 15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142~9

P R E V I E W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듀오 리사이틀

비올라로 듣는 바로크, 고전, 낭만의 숨결

© Sang Wook Lee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올리스트이자 2021년 그래미상 수상자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오는 12월 20일 오후 5시,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듀오 리사이틀 무대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리처드 용재 오닐은 2013년 맥아더 지니어스 펠로십, 2014년 에이버리 피셔상에 빛나는 미국의 대표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와 호흡을 맞춘다. 2019년 듀오 리사이틀 이후 6년 만의 재회다.

글 국지연 음악 칼럼니스트

비올라는 현악기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가까운 음색을 가진 악기로 평가받는다. 바이올린보다는 낮고 첼로보다는 한 옥타브 정도 높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율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속삭이는 고백처럼 은은하고 달콤하다. 이번 무대에서 리처드 용재 오닐과 제레미 덴크가 들려줄 프로그램은 그 어느 무대보다 흥미롭다. 공연은 'B'를 주제로 바흐Bach,

베토벤Beethoven, 베를리오즈Berlioz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질서와 신앙 속에서 자유를 추구했던 바흐, 고전주의의 구조 위에서 인간의 내면과 운명, 의지를 소리로 탐구했던 베토벤, 낭만적 환상과 서사를 다채로운 오케스트라로 표현했던 베를리오즈까지, 리처드 용재 오닐은 바로크와 고전, 낭만을 잇는 클래식 음악사를 비올라를 중심으로 독주에서 실내악, 나아가 오케스트라적 작품으로 확장해 가며 정통 클래식의 정수를 선보인다.

공연의 첫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비올라 솔로 편곡 버전)이다. 바흐가 남긴 여섯 개의 첼로 모음곡 중에서 가장 밝고 찬란한 색채를 지닌 작품으로, 특히 2악장 사라반드Sarabande에서는 음 사이 여백의 아름다움과 곡 전체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마치 바흐의 영혼이 담겨 있는 듯한 이 작품을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함을 풍기는 비올라의 독주 선율로 만나 볼 수 있다.

두 번째 곡은 베토벤 실내악 중 가장 밝고 유쾌한 매력을 지녔다 꼽히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 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이다. 모차르트를 존경한 베토벤이 그의 오페라 선율에 구조미와 생동감을 더해 재탄생시킨 이 곡은 평화롭고 우아한 선율이 돋보인다. 섬세하면서도 중후한 용재 오닐의 비올라와 자신만의 소리를 완성해 온 제레미 덴크의 개성 넘치는 피아노가 어떤 조화를 이룰지 기대를 모은다.

이어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은 그가

생애 마지막 시기에 작곡한 걸작 중 하나로, 고통을 넘어 회복과 구원을 그린 작품이다. 청력을 완전히 잃은 후 삶의 끝자락에서 쓴 곡이기에 베토벤의 강한 의지와 생명력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깊은 상처를 가진 자만이 노래할 수 있는 절실한 기도와 같은 음악이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익숙한 작품조차 새롭게 빛나게 하는 연주자"라고 평했던 제레미 덴크의 손끝에서 흐르는 강렬한 베토벤의 의지를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낭만주의를 이끈 두 거인, 베를리오즈와 리스트를 만난다. 베를리오즈 교향곡 <이탈리아의 헤룰드>를 리스트가 비올라를 위해 편곡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학과 자연, 인간의 고독이 담겨 있는 '시적인 교향곡'으로, 낭만주의의 핵심 주제인 '방랑과 내면의 성찰'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이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시적 감성과 표현이 중시되는 곡으로, 섬세한 음악성을 지닌 용재 오닐과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바로크와 고전, 낭만을 아우르며 인간의 기억이 예술로 승화된 순간을 담아내는 이번 무대, 그 시간을 음악과 함께 조용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맑게 정화된 우리의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듀오 리사이틀

일시 12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발레 <호두까기 인형>

눈이 내리면, 환상의 무대가 시작된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전 세계 무대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이름이 있다. 바로 <호두까기 인형>.

백 년 넘게 이어진 이 발레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글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사진 제공 와이즈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이 찾아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연말이다. 호프만^{E.T.A. Hoffmann}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왕』을 춤으로 옮긴 이 고전 발레는 크리스마스에 인형을 선물받은 소녀 클라라가 겪는 하룻밤 모험을 그린다. 러시

아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가 1892년 처음 안무를 맡았고 이후 고르스키¹⁹¹⁹, 바이노넨¹⁹³⁴, 발란신¹⁹⁵⁴이 잇따라 새 무대를 선보이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겨울 공연의 상징이 됐다. 유행이 금세 바뀌는 시대에 세기

를 넘어 베스트셀러가 된 공연이라니, 연말의 설렘을 가족·친구·연인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무대를 통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는 이렇다. 독일의 한 마을, 클라라의 집에서는 크리스마スイ브 파티가 한창이다.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법사 드로셀마이어가 마술로 분위기를 돋우며 클라라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한다. 그날 밤 인형을 안고 잠든 클라라는 거대한 트리와 함께 나타난 생쥐 왕과 병정들의 전투를 마주한다. 혼란 속에서 위험에 처한 호두 왕자를 구해 낸 클라라는 드로셀마이어의 인도를 받아 눈의 나라로 향한다. 이때 1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눈송이 왈츠’는 첫눈이 내리는 듯한 음악과 군무가 어우러져 본격적인 환상의 여정으로 관객을 이끈다.

과자 나라를 탐험하는 2막은 고전 발레의 진수를 보여주는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과 그랑파드되^{grand pas de deux}가 핵심이다. 디베르티스망(볼거리를 위한 춤 모음)에서는 스페인·아라비아·중국·러시아 등 각국의 춤이 차례로 등장한다. 화려한 향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꽃의 왈츠’는 아름다운 음악과 군무가 어우러져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성남아트센터를 찾은 와이즈발레단은 특히 해석과 방향을 ‘어린이의 시선’에 맞췄다. 국내 발레단 대부분이 꿈속에서 어른이 된 클라라를 중심으로 환상의 여정을 그리지만, 이 무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역 무용수가 등장한다. 결말 역시 다르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는 아이의 동심을 지키듯, 모험을 ‘하룻밤의 꿈’이 아니라 ‘진짜 경험’으로 남긴다.

그중 2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그랑 파드되(큰 2인무)다. 이 춤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대표하는 클라이맥스로, 전통적으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하나는 주인공 클라라와 호두왕자가 함께 춤추는 형태, 다른 하나는 설탕 요정과 그녀의 왕자가 추는 형태다. 국내 발레단은 대부분 전자를 택한 반면, 와이즈발레단은 1892년 프티파 초연의 구성처럼 별도의 설탕 요정이 그랑 파드되를 춘다. 어린 클라라의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와이즈발레단의 의지가 담겼다.

또한 와이즈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은 생쥐 왕을 코믹한 성격으로 설정해 전투 장면을 한층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로 바꿨다. 기존 무대에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던 대목을 더 다이내믹하게 구성해 어린 관객도 끝까지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2막 디베르티스망 중 ‘아라비아 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더해 다른 버전에서는 보기 힘든 역동성을 구현했다. 이렇듯 시대마다 새롭게 숨 쉬는 무대가 있기에 ‘호두까기 인형’은 눈송이처럼 쌓인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빛난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일시 12월 21일(일) 오후 2시, 6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마티네 콘서트 12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에 흐르는
왈츠와 오페레타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는 올 한 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주제로 클래식 음악의 심장, 오스트리아로 음악 여정을 이어 왔다. 하이든과 모차르트로 시작해 슈베르트, 브루크너, 말러에 이르기까지 오스트리아 음악사의 흐름을 따라 고전과 낭만, 그리고 현대를 잇는 음악적 지도를 그리며 빈^{Wien} 음악의 정수^{精髓}를 탐색했다. 12월, 그 여정의 종착지는 왈츠와 오페레타로 향한다. 한 해의 끝, 화려한 무도회 같은 무대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소프라노
박소영



테너
김민석

왈츠는 19세기 빈 시민 문화의 상징이자, 오스트리아 음악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장르다. 고전과 시대부터 유희기 시작해 슈트라우스 부자^{父子}가 꽃을 피운 '빈 왈츠'는 단순한 춤곡을 넘어 삶의 활력과 낭만을 품은 예술로 발전했다. 3박자의 흐르는 듯한 리듬은 유려하면서도 서정적이며, 당시 유럽 사회가 꿈꾸던 평화와 번영의 이상을 음악으로 형상화했다. 한편, 폴카는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빈의 일상에 생기를 더했다. 슈트라우스 일가의 폴카는 귀족의 무도회뿐 아니라 시민의 광장에서 울려 퍼지며 도시의 활력과 유머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리듬의 명확한 박동 속에 담긴 유쾌한 에너지는 시대를 넘어 '빈의 정서'를 직접 전해 주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왈츠와 폴카를 빛낸 별이 슈트라우스라면, 그 음악적 전통을 잇는 또 다른 별이 바로 프란츠 레하르다. 그는 20세기 초 오페레타의 황금기를 이끌며 '춤추는 빈'을 한층 낭만적인 도시로 그려 냈다. 오페레타는 희극적 오페라의 한 형태로, 사랑과 유머와 세련된 멜로디가 어우러진 대중적인 장르다. 왈츠와 폴카가 도시의 리듬이라면, 오페레타는 그 위를 유행하는 선율과 같다.

12월의 마티네 콘서트는 왈츠와 폴카, 오페레타와 함께 한 해의 끝을 우아하고 경쾌한 선율로 물들인다.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과 폴카 <걱정 없이!>, 왈츠 <봄의 소리>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빈의 밤 풍경을 그려내며,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과

<주디타>, 플로토의 <마르타>의 아리아가 더해 사랑과 향수, 웃음이 어우러진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특히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을 맞은 올해, 마티네 콘서트의 피날레는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에 대한 헌정이기도 하다. 부드러운 3박자 속에 녹아든 한 세기의 낭만과 오페레타의 밝은 미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공연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적인 주요 무대에서 활약해 온 소프라노 박소영과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아우르며 많은 사랑을 받는 테너 김민석이 협연하고, 지휘자 정한결이 이끄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한다.

12월의 마지막 아침, 아름다운 도나우의 물결 위로 흐르는 음악은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고. 남은 날들을 마음껏 춤추듯 즐겨 보라고.

마티네 콘서트 12월

'춤추는 빈, 왈츠와 오페레타'

일시 12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창작오페라로 다시 태어난 동요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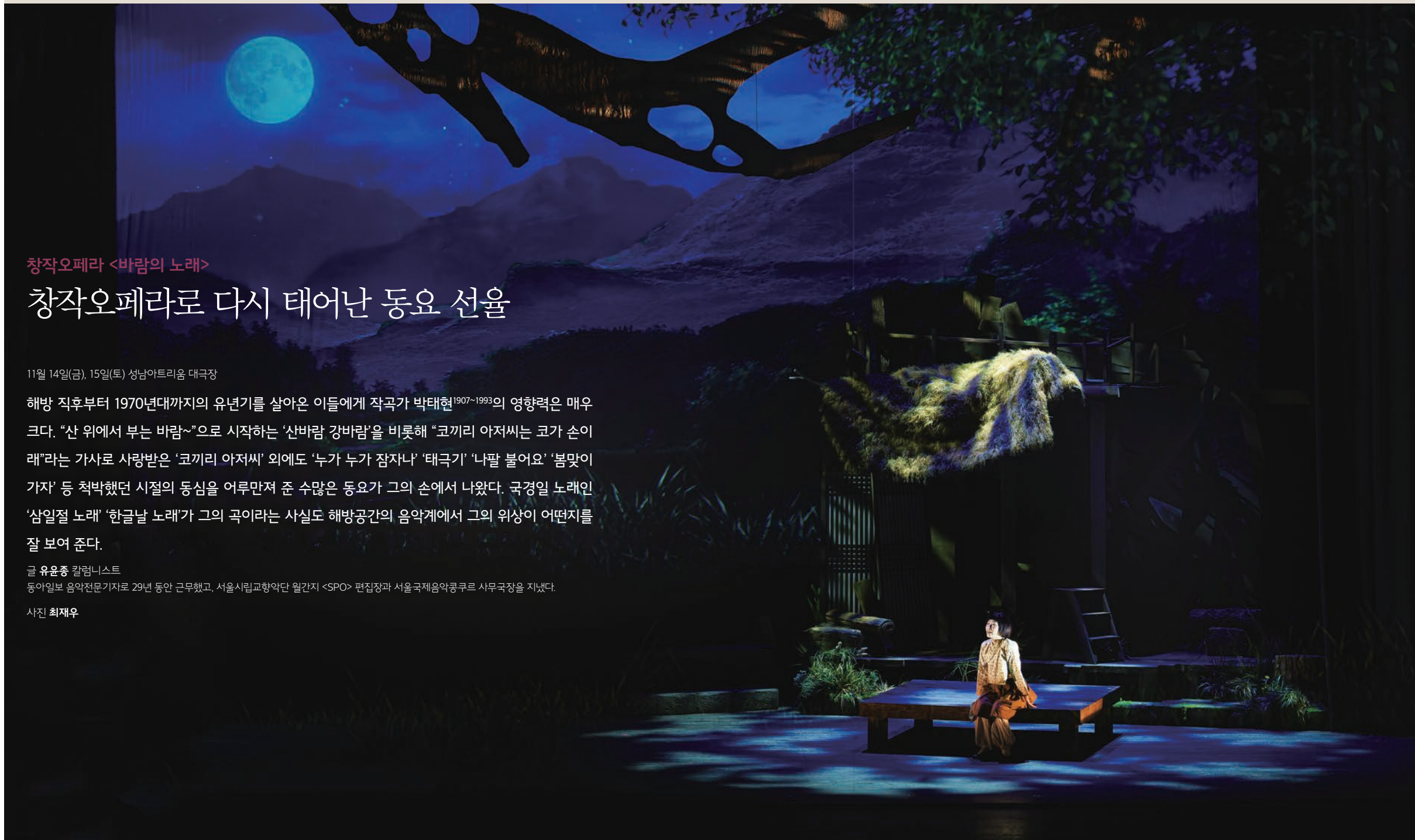
11월 14일(금), 15일(토)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유년기를 살아온 이들에게 작곡가 박태현^{1907~1993}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으로 시작하는 ‘산바람 강바람’을 비롯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 래”라는 가사로 사랑받은 ‘코끼리 아저씨’ 외에도 ‘누가 누가 잠자나’ ‘태극기’ ‘나팔 불어요’ ‘봄맞이 가자’ 등 척박했던 시절의 동심을 어루만져 준 수많은 동요가 그의 손에서 나왔다. 국경일 노래인 ‘삼일절 노래’ ‘한글날 노래’가 그의 곡이라는 사실도 해방공간의 음악계에서 그의 위상이 어떤지를 잘 보여 준다.

글 유윤종 칼럼니스트

동아일보 음악전문기자로 29년 동안 근무했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SPO> 편집장과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무국장을 지냈다.

사진 최재우



만년을 성남에서 보냈고 성남사랑의 노래인 ‘나 성남에 살리라’를 작곡한 박태현의 노래들이 성남문화재단에 의해 오페라로 탄생했다. 김주원 작곡·황정은 대본으로 11월 14, 15일 성남아트 리움 대극장에서 초연된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다. 박태현의 동요 원곡과 작곡가 김주원이 창작한 노래들을 적절히 활용했으며, 작곡가는 “조성음악과 현대적 기법의 대비를 통해 대본과 음악의 결을 일치시키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박태현의 동요는 주요 3화음과 딸림7화음^{V7}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순한 화성과 간명한 선율을 토대로 한다. 김주원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서정가곡에서 진가를 발휘해 온 작곡가지만 동시대 작곡가답게 다양한 색깔의 화성과 반음계를 활용해 왔다. 두 작곡가의 세계는 조화롭게 만날까.

단일하거나 명쾌한 해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박태현의 세계는 김주원의 세계에, 김주원의 세계는 박태현의 세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녹아든 것으로 보였다. 김주원은 작곡 노트에서 밝힌 ‘산바람 강바람’ ‘깊은 밤에’

‘엄마’ 등 세 개의 박태현 선율 동기를 선율선과 반주부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도레미파’의 반주에 리드미컬한 피치카토를 활용하는 등 원곡의 선율에 적절한 색채를 입힌 점도 돋보였다.

김덕기 지휘, 성남시립교향악단이 맡은 반주에는 조건적 한계가 있었다. 파트당 6명^{3파트}으로 구성된 현악부 편성은 두께감과 선명한 화성적 이미지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했다. 초연 공간의 한계와 향후 소규모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듣는 이에게는 더 큰 편성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랐다. 관악부 역시 1관 편성으로 제약이 있었지만, 작곡가의 효과적인 선율 및 성부 배분 덕에 이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주인공인 전쟁고아 ‘강바람’ 역의 홍혜란과 그의 상상 속 친구 ‘달’ 역의 최원휘는 맑고 순수한 음성만으로 자기 몫을 다했다. 성악적, 연기적으로 움직임이 큰 ‘바람’ 역의 백재은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강바람의 보호자가 되는 군인 ‘최범석’ 역의 우경식도 강건하고 신뢰



홀로 남겨진 ‘강바람’이 노래를 부르자, 그 목소리에 이끌린 ‘바람’과 자연의 친구들이 집에 모습을 드러낸다.
사진 왼쪽부터 강바람 역의 소프라노 홍혜란, 바람 역의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달 역의 테너 최원휘

강바람의 집에 모인 동물 친구들이 노래와 춤으로 평화로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

감이 드는 발성으로 무대를 이끌었다. 다만 ‘국민동요’라고 할 수 있는 ‘산바람 강바람’을 홍혜란이 노래할 때에는 그 음높이(음역) 설정에 의문이 들었다. 어른의 화려한 소리가 아닌 어린이의 순수한 음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더 높은 음역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선명한 인상을 주었을 수 있다. 바람 역인 메조소프라노 백재은과 소프라노인 강바람 역의 음역 대비가 크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작품에서 작곡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박태현의 작품은 유도동기에 활용한 세 곡 외에 ‘도레미파’ ‘누가 누가 잠자나’ 등이었다. 이 중 ‘깊은 밤에’ ‘엄마’ ‘도레미파’는 1960년대생인 필자에게도 친숙지 않은 곡들이다. 필자 세대에겐 훨씬 익숙한 박태현의 곡으로는 ‘태극기’



먹이를 찾아 강바람의 집을 습격한 늑대개 무리.
강바람과 달이 동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늑대개 무리와 맞선다

‘코끼리 아저씨’ ‘나팔 불어요’ ‘봄맞이 가자’가 있다. ‘태극기’는 그 뚜렷한 주제성 때문에, ‘코끼리 아저씨’는 산의 자생 동물과 곤충들이 등장하는 이 극과 이국의 동물인 코끼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 오페라에 적용이 어려웠겠지만 ‘나팔 불어요’와 ‘봄맞이 가자’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웠다. ‘잠자거라 우리 아가’와 ‘누가 누가 잠자나’ 두 자



설 곳을 찾아 강바람의 집으로 찾아온 귀뚜라미와 개미들.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맑은 목소리와 귀여운 안무가 장면에 생동감을 더했다



군인 최범석이 강바람을 구해 고아원으로 데려온다. 최범석 역의 베이스바리톤 우경식(사진 오른쪽)

장가 선율이 어우러진 부분은 효과가 좋았으나 한계도 있었다. 필자의 세대에서 ‘잠자거라 우리 아가’는 대부분 같은 가사에 박태현의 곡 보다는 권길상이 곡을 붙인 노래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대화는 대사가 아닌 레치타티보를 활용했다. 대부분의 한국 창작 오페라가 레치타티보 적용에서 어려움을 드러낸다. 입말의 억양을 살리는 것 외에도 박자와 음절의 적절한 분할 및 배치, 단순 음정 부여를 넘어선 큰 시간 단위에서의 선율적·화성적 이미지 형성은 창작오페라 관람 때마다 늘 미해결 숙제로 느껴진다. 이 작품 역시 이 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날 공연에서 투사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출은 좋은 효과를 낳았다. 반면 ‘달’ 역 출연자의 의상은 엄마가 옷에 수놓아 준 ‘달’이라는 한글 표시로 상징된다. 직접 드러나는 문자 이미지는 극의 상징성을 해치기 쉽다. 옷이나 머리 부분의 둥근 원반에 ‘방아 찰는 옥토끼’ 무늬를 넣는 것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공연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말로 글을 맺는 점이 양해되기를 바란다. 극 중 최범석이 수행한 고아의 보호자 역할은 실제 한국전쟁 당시 미군 장교나 병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보육원에 수용된 원생들도 많은 수가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슬픈 민족사의 단면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큰 행복을 찾았기를 뒤늦게나마 기원한다.

R

E

V

I

E

W

성남페스티벌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

숲은 기억한다 - 기술과 예술로 그린 자연의 시학

지난 9월 19일, 선선한 가을밤 공기와 함께 가벼운 빗줄기가 내리던 분당 중앙공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익숙한 산책로와 나무들의 실루엣은 곧 시작될 70분간의 새로운 풍경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성남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단순한 야외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중심에 자리한 공공의 자연이 기술과 만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차원의 시적 언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새로운 공연 경험의 장으로, 의미 있는 예술적 시도이자 감각적인 접촉의 순간이었다.

사진 최재우



총감독을 맡은 이진준(카이트 아트앤테크 놀로지 센터장)은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기술과 인간, 자연의 경계를 탐구해 온 예술가이자 학자다. 그의 지휘 아래 펼쳐진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분당 중앙공원'이라는 특정 장소가 품고 있는 역사, 생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억과 깊이 대화하는 예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프로젝션 매핑과 빛을 활용해 도시의 표면을 장식하던 초기 미디어 파사드를 넘어, 예술이 장소와 공동체의 서사를 직조하는 통합적 매체로 진화한 전환점을 보여 준다.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분당 중앙공원을 배경이 아닌, 작품의 핵심적인 주인공으로 제안했다. 분당 중앙공원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던 숲을 기반으로 한 공원이 아니라 1994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영장산 자락의 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며 조성된, 계획된 숲이다. 공원 안에는 성남 곳곳에서 옮겨 온 고인돌 무리와 한산 이 씨 가문의 전통 가옥인 '수내동 가옥'이 보존되어 있어 고대와 근대, 그리고 현대 신도시의 시간이 겹친 다층적 팔림프세스(palimpsest)와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이진준 감독은 성남의 풍부한 녹지와 첨단 기술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정체성에서 영감을 받아, 숲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연과 기술, 예술을 매개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빛과 소리로 그린 확장된 공감의 숲

작품은 이 장소의 '진경'을 드러내기 위해 첨



도시 속 숲이 거대한 '열린 극장'으로 변한 순간, 분당 중앙공원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무대였다

단 기술을 동원한다. 16대의 초고해상도 프로젝터와 레이저는 200m에 달하는 숲의 나무와 나뭇잎, 지형의 불규칙하고 유기적인 표면 그대로를 캔버스로 삼았다. 빛의 입자가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통해 나뭇잎 군집에 맺히며 숲은 문자 그대로 '움직이는 꽃(動花)'으로 피어났다. 관객은 가상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 온 실제 나무들이 빛의 옷을 입고 자신의 역사와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마주했다.

<시네 포레스트: 동화>의 경험을 시각적인 인상을 넘어 총체적 감각으로 확장한 또 다른 요소는 '미디어 심포니'라 불린 사운드 디자인이다. 시각과 청각, 공간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입체 음향은 이진준 감독이 제시한 '증강된 공감(augmented empathy)'을 실현하는 핵심 장치였다. 이 교향곡은 서로 다른 시공간의 소리들을 하나의 시청각적 경험으로 통합하며 관객의 감각을 전방위적으로 열어젖혔다. 공원 전체를 감싸는 3차원적 사운드스케이프 속에서, 관객은

뒤쪽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전면을 울리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1,000명 시민 합창단의 목소리가 뒤섞인 거대한 공명 안에 온전히 잠겼다.

특히 시민 합창단의 존재는 상징적이었다. 이진준 감독은 그간의 작업을 통해 AI 알고리즘이 개인을 '취향의 감옥'에 가두고 고립시키는 인식론적 위기를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그러나 공연에 참여한 1,000명의 시민은 수동적 관객이 아닌, 소리 풍경의 공동 창조자로 자리했으

며 이는 디지털 고립에 맞서는 아날로그적, 공동체적 저항이다. 가상 플랫폼이 흉내 낼 수 없는 실제 공간의 공명과 호흡은 그 자체로 단절된 개인들을 잇는 치유의 경험으로 작동했다.

경계의 예술, 기억의 체험

이진준 감독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경계 공간·boundary space’ 혹은 ‘리미노이드 경험·liminoid experience’이다. 그는 창문, 계단, 무대처럼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호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환과 초월의 순간에 주목해 왔다.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그의 예술적 탐구가 도심 속 숲이라는 거대한 경계 공간에서 펼쳐진 결과물이었다. 분당 중앙공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경계 공간이다. 계획된 도시와 보존된 자연의 경계, 고대 고인돌과 현대의 아파트가 공존하는 시간의 경계,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실제의 숲과 가상의 빛이 중첩되는 경계에서 관객은 단순한 관람자를 넘어, 온몸으로 이 세계를 느끼는 체험자가 되었다.

이 경험이 남기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육화된 기억’이다. 서늘한 밤공기와 빗줄기의 감촉,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가 몸을 진동시키는 울림, 시야를 덮은 빛의 파노라마, 그리고 1,000명의 목소리가 만들어 낸 공진 - 이 모든 기억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이는 감독이 설계한 총체적 경험^{total experience}의 구현이며, 2025 성남페스티벌의 주제인 ‘먼저 온 미래’와도 맞닿는다.

<시네 포레스트: 동화>가 펼친 미래는 차가운

기술의 디스토피아도, 공허한 스펙터클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이 인간과 자연,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미래, 성남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의 모습이었다.

숲을 무대로 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남은 과제

<시네 포레스트: 동화>처럼 숲을 무대로 삼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2014년 캐나다 퀘벡에서 진행된 모먼트 팩토리^{Moment Factory}의 <포레스타 루미나^{Foresta Lumina}>는 숲 자체를 몰입형 전시의 캔버스로 바꾼 선구적 사례다. 관객들은 밤의 숲길을 걸으며 주변 자연에 투영된 빛과 소리, 설화적 이야기가 어우러진 마법 같은 모험을 경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사례가 설치형 전시나 라이트 쇼 형태에 머문 반면,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70인조 오케스트라와 1,000명 합창단의 대규모 라이브 음악을 결합하고 수천 명의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공연을 감상하는 공연형 포맷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가을밤 숲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열린 극장’이 되었다. 인공 구조물이 아닌 나무와 나뭇잎은 그대로 무대가 되었고, 나뭇가지마다 투영된 빛은 마치 숲이 숨을 쉬며 꽃을 피우는 듯한 생동감을 자아냈다. 작품의 부제 ‘동화^{동화}’는 움직이는 꽃이면서, 동시에 환상의 이야기^{fairy tale}를 뜻하는 ‘동화^{童話}’와 발음이 같다. 숲에 피어난 빛의 서사를 동화적 정서로 보여 주는 상징적인 제목일 것이다.



1,000명의 시민합창단은 관객이자 참여자로 숲의 울림을 목소리로 완성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시도가 남긴 과제도 있다. 숲 전체를 무대로 삼는 만큼 빛 공해와 소음이 숲의 본래 주인이었을 조류나 야행성 곤충 등에 미칠 생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에는 공연 시간과 조도, 레이저 각도 등을 보다 세밀하게 조율해 ‘자연과의 합주’가 환경적 책임감으로 완성도를 더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예술적 측면에서 ‘AI 작곡가’와의 협업 방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나 실제 작곡 과정에서 기여한 역할과 범위가 공개되었다면, 작품이 지닌 ‘기술적 진정성’이 한층 더 깊은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이진준 감독이 “예술의 역할은 자본과 알고리

즘의 거대한 흐름을 잠시 멈추고 환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개인화된 스크린이 강요하는 고립에 대응해 공존과 현존감을 되살리는 문화적 대안의 하나로 자리했다. 70분의 공연은 끝났지만, 그 감각 잔여물은 관객들의 지각 속에 남아 분당 중앙공원을 이전과는 다른 공간으로 바꿔 놓았다. 이제 숲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억과 마법이 깃들 수 있는 잠재적 캔버스가 되었다.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예술이 어떻게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깊이 호흡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시적이고 희망적인 응답이었다.

글 **허대찬**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 디렉터

미디어 아트 및 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큐레이터, 교육자로서 국내 미디어 아트 활동의 순환 및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aliceon.co.kr} 편집장²⁰¹⁹, 게임 연구 집단 더플레이 대표, 한국디자인사학회의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 성남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성남에 펼쳐진 '먼저 온 미래'를 만나다

기술과 예술, 시민의 상상력이 만나는 미래형 축제, 2025 성남페스티벌이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성남 곳곳에서 펼쳐졌다. 도심 속 심터로 사랑받는 분당 중앙공원부터 성남을 관통하며 시민의 삶을 잇는 탄천, 원도심의 희망대근린공원과 첨단기술 도시 성남의 내일을 그려 갈 판교역 일대까지 일상 속 새로운 경험과 풍경을 마주했던 10일간의 여정. 그 '먼저 온 미래'의 현장을 담았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사진 최재우





분당구청 잔디광장과 희망대공원에는 넥슨의 게임 캐릭터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첨단기술의 도시, 성남을 태그(#)하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과 원도심의 희망대근린공원에서는 첨단기술의 도시 성남의 매력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의 부제인 ‘T.A.G. Seongnam’에 맞게, 기술^{Technology}, 예술^{Arts}, 게임^{Game}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넥슨 러쉬플러스와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와 함께하는 모바일 AR 농구와 박 터트리기, 보물찾기 등의 게임 외에도 AI 로봇과의 바둑 대결, VR 체험, 캘리그래피, 컬러링 등이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은경 광주시 장지동

“인스타그램에서 성남페스티벌 소식을 보고 친구와 함께 놀러 왔어요. 분당구청 앞에서는 메이플스토리 AR 게임을, 탄천에서는 카약 체험을 즐겼는데, 곳곳에 다양한 체험 스케줄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송준우 성남시 수정구

“엄마, 아빠와 함께 AR 농구 게임에 참여해서 뭇자리와 모자를 경품으로 받았어요. 평소에 휴대전화 게임을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AR 게임이 카트라이더 게임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재미있었고 선물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AI 로봇과 바둑 대결 중인 어린이와 VR 체험 중인 시민들



일상 속 예술을 만나다

축제 기간, 도심 속 공원부터 회사 앞 광장까지 일상의 모든 곳이 무대가 되었다. 메인 콘텐츠로 선보인 미디어 퍼포먼스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중앙공원의 숲을 거대한 열린 극장 삼아 시민들에게 가을밤 동화 같은 순간을 선사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남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이 분당구청 잔디광장과 판교 콘텐츠거리, 탄천, 희망대근린공원 야외공연장 등 성남시 곳곳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점심 식사를 마친 판교 직장인들은 유쾌한 난버벌 퍼포먼스를 즐기며 업무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났고, 주말 오후 탄천을 산책하던 시민들은 마술쇼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국내 대표 명품 보컬리스트 김범수와 HYNN^{박혜원}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파크콘서트 무대에서 가을밤을 감성 넘치는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파크콘서트 현장

탄천에 배 띄워라!

올해 축제에서도 단연 인기였던 프로그램은 탄천 한가운에서 즐기는 카약 체험이었다. 27일(토), 28일(일) 이틀간 진행된 카약 체험은 온라인과 현장 예약 모두 마감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딸 보연(6세) 양과 함께 축제를 찾은 이은구(성남시 분당구) 씨는 “카약 현장 예약을 하려고 아침 9시 반부터 나와 오픈런을 했다”라며 “옷이 다 젖었지만 아이와 처음으로 노도 저어 났고, 잔디밭에 테이블과 의자 등 쉴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어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즐기고 있다”라며 웃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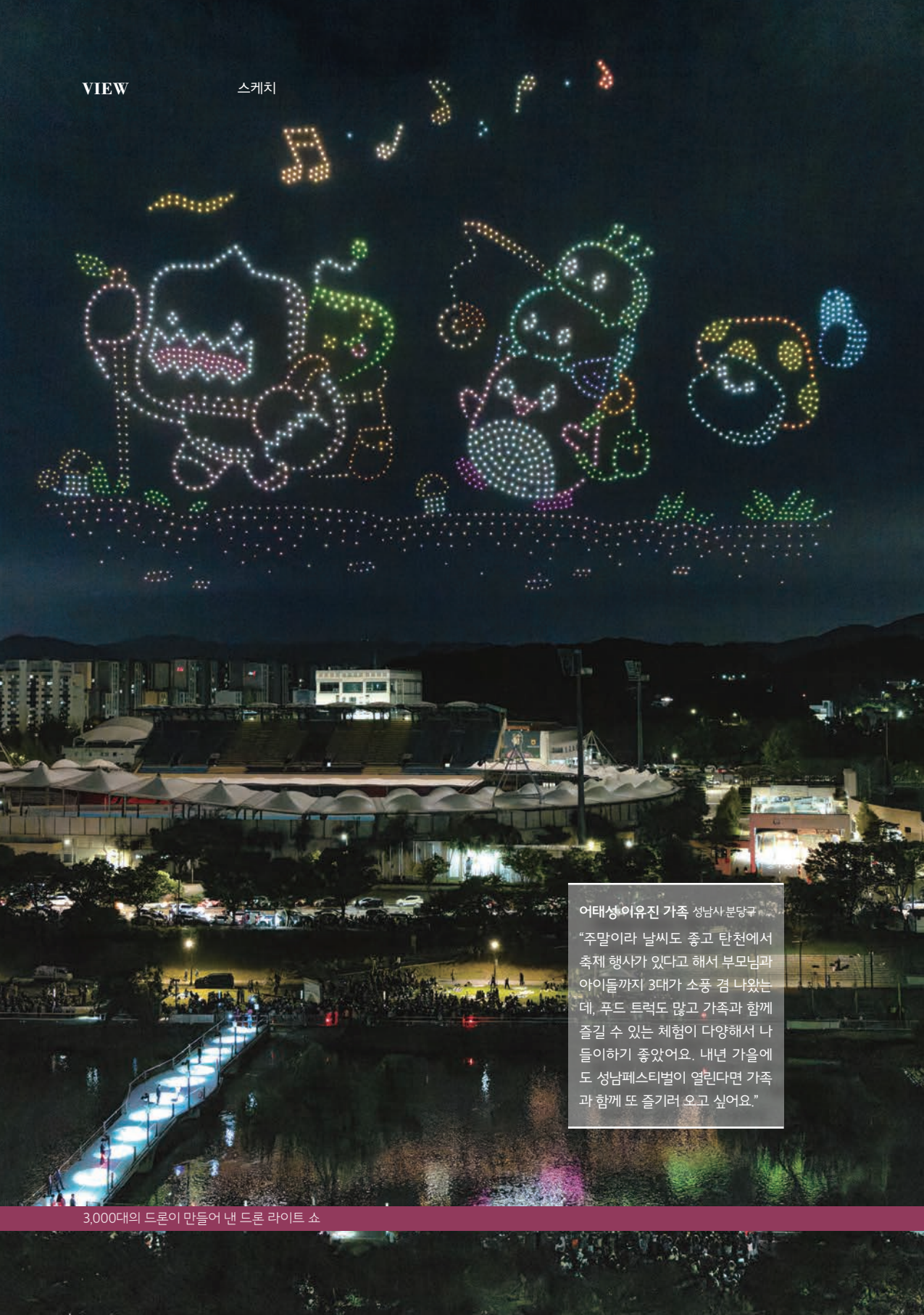
판교역 광장을 유쾌한 웃음으로 물들인 난버벌 퍼포먼스 그룹 '하다아트컴퍼니'(왼쪽)와 탄천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서커스부부'



탄천에서 카약 체험을 즐기는 시민들

박지혜 성남시 분당구

“도서관에 비치된 <비전성남> 소식지를 통해 축제 기간과 카약 체험 온라인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고 있다가 아들과 함께 참여했어요.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탄천을 자주 오가는데, 물 위에서 바라보니 또 다른 풍경으로 느껴져 새롭네요.”



어태성·이유진 가족 성남사분당구
 “주말이라 날씨도 좋고 탄천에서
 축제 행사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3대가 소풍 겸 나왔는
 데, 푸드 트럭도 많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다양해서 나
 들이하기 좋았어요. 내년 가을에
 도 성남페스티벌이 열린다면 가족
 과 함께 또 즐기러 오고 싶어요.”

3,000대의 드론이 만들어 낸 드론 라이트 쇼



© 성남시청/이태준 한성수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성남뮤직페스티벌

성남의 하늘 수놓은 게임 속 캐릭터들

축제의 마지막 날인 9월 28일(일) 밤에는 금난새 지휘자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뮤직페스티벌에 이어 3,0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성남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날아오른 드론들이 성남의 밤하늘에 넥슨 메이플스토리 속 캐릭터들을 생생하게 구현하자, 탄천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드론으로 빛난 성남의 밤하늘과 반짝이는 탄천의 물결,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시민들의 실루엣이 성남의 도시 풍경을 새롭게 완성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2025 성남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며 기술과 예술, 게임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여운으로 마무리됐다.

VERMEER

빛의 화가 - 베르메르의 비밀 : 고요 속의 빛

Johannes Vermeer Replica Exhibition - Light in the Quiet



12.12.2025 _ 03.15.2026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성남큐브미술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문의 |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031.783.8142~9, 031.335.5050

주최 | 성남문화재단 · 디자인 민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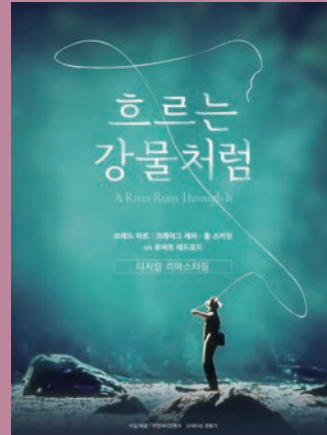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리포트
제19회 소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이모저모

트렌드
근본이즘, 본질을 찾아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이해 못 해도 사랑해라...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까



A R I V E R R U N S



T H R O U G H I T

유전자의 힘은 무섭다. 핏줄은 우리 몸속에 새겨져 밖으로 드러난다. 외모로 가족 관계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형제와 자매가 닮은꼴이 아니면 우리는 의외라며 놀란다.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성격까지 닮을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안다.

20세기 초 미국 몬태나주 시골에서 3년 터울로 태어난 형제 노먼 맥클린(크레이그 셰퍼)과 폴 맥클린(브래드 피트)도 다른 형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먼이 신중하고 기성세대의 규칙에 충실한 편이라면 폴은 대범하고 통념에 반기를 드는 쪽이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어려서부터 너무 달랐던 형제

형제의 가정환경은 여느 집보다 엄격하다. 아버지 존(툼 스커리트)은 장로교 목사다. 스코틀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근면과 성실을 무기로 낫선 땅에 정착하려 한다. 아이들 교육엔 더 엄할 수밖에 없다. 집이 곧 학교다. 몬태나주는 여전히 서부 개척기이니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을 리 없다.

아버지의 교육은 남다르다. 문장 과제를 낸 후 아이들이 결과물을 가져오면 밑줄을 긋고 다시 쓰기를 시킨다.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한다. 자신의 유일한 취미인 플라이 낚시를 할 때에도 규칙에 충실하다. 리듬감 있게 낚시줄을 던져 고기를 낚곤 한다. 그 엄격함은 아들들에게 플라이 낚시를 가르칠 때에도 적용된다. 메트로놈을 활용해 리듬감이 아이들 몸에 배도록 한다.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예법을 배우고, 학교를 대신한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두 아들이 똑같은 인생길을 걸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노먼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해낸다. 지겨운 반복에 짜증을 내면서도 문장 과제를 끝까지 한다.

폴은 다르다. 그는 집안의 오랜 전통이라 강조해도 귀리 섭취를 완강히 거부한다. 몇 시간이 지나도 접시에 담았을 때 모양 그대로인 귀리 요리는 폴의 완고한 성격을 대변한다. 노먼은 늘 아버지 뜻을 따르며 부모 곁에 있을 듯한 인물인 반면, 폴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먼 세상으로 향할 듯하다.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일까. 노먼과 폴은 대학에 진학할 때 성향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노



먼은 집에서 5,000km 떨어진 동부 명문 다트머스 대학에 진학한다. 폴은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간다.

노먼이 6년 동안 다트머스 대학에 머물 무렵, 미국은 금주법과 재즈의 시대였다. 금주법에 따라 술 제조와 판매, 구입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하나 세상은 오히려 고삐 풀린 형국으로 돌아갔다. 밀주가 유통되고 조직범죄가 발호했다. 공권력은 알 카포네¹⁸⁹⁹⁻¹⁹⁴⁷ 같은 거물 마피아 두목의 범죄를 단속하느라 바빴고, 사회는 불안정했다. 반면 재즈가 유행하며 자유분방한 기운이 미국 사회에 넘실거렸다. 노먼은 시대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낀 후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그가 진보주의자가 되어 가족 앞에 다시 선 것은 아니다.

폴은 고향을 떠나지 않은 대신, 플라이 낚시에서 삶의 새로움과 즐거움을 발견한 듯하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기법으로 자신만의 낚시법을 발전시켰고, 자연과 낚시에 취해 20대 초반을 보냈다. 그렇다고 그가 반항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버린 것은 아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지역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반골 기질을 드러낸다. 근무 중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애인과 출입이 금지된 술집을 찾아가기도 한다.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노먼의 삶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면, 폴의 인생은 불안정하고 위태롭다. 누구의 삶이 더 올바르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둘은 각자의 가치관과 성격에 따라 자기 길을 갈 뿐이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20세기 초 몬태나주는 황무지 같은 곳이다. 1889년에야 미국에 편입돼 41년

째 주가 됐다. 새로운 미국 영토였던 셈이다. 일본과 비슷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수십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막한 땅이었다. 노먼과 폴이 태어나고 자라 성인으로 살아가던 시기는 ‘미국 땅’ 몬태나주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 영화는 노먼과 폴을 통해 몬태나주의 초기 풍광을 돌아본다.

노먼과 폴은 다른 성격과 가치관으로 각기 다른 삶을 살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애는 변치 않는다. 노먼은 폴의 도발적인 행위에 늘 불안하나 동생의 언행을 존중한다. 폴은 시카고 대학 강사직 제안을 받은 노먼에게 슬쩍 질투를 느끼면서도 형의 연애를 위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아버지와 성인이 된 두 아들이 송어 낚시를 함께 하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송어를 낚는다. 낚시 방법에 엄격했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들에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세 사람은 각자 잡은 송어를 한곳에 모으고 즐겨워한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각자 알아서 ‘물고기’를 잡는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해 줄 말이 없다. 폴이 성^수 Maclean을 의도적으로 MacLean으로 표기해 아버지의 화를 돋우지만 말이다. 이 또한 개성 강하고 도발적인 막내아들다운 행동이라 대놓고 뭐라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임종 전 마지막 설교에서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으나 오롯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며 젊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폴을 떠올린다. 누구나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오롯이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노인이 된 노먼은 낚시를 하며 동생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된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읊조린다. 매사 신중하고 전통을 중시했던 노먼의 삶도, 진취적이고 도발적이며 통념에 반했던 폴의 인생도, 그리고 다른 이들 각자의 인생도 다 합쳐져 세상이라는, 역사라는, 시대라는 물줄기를 이룬다. 그러니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지나친 언행이 아니라면 자신과 다르다며 지적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노먼은 어쩌면 “이해하지는 못해도 사랑하라”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강물을 보며 떠올렸는지 모른다. 노먼이 노년에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은 흐르는 강물의 윤슬처럼 스크린에 반짝인다.

영화는 시카고대 영문과 교수 노먼 맥클린¹⁹⁰²⁻¹⁹⁹⁰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9월 16일 89세로 생을 마감한 배우 겸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가폰을 잡았다. 할리우드의 현인이었던 레드포드는 우리를 위해 삶의 안내서 같은 영화를, 세상을 떠나기 33년 전 미리 유산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사진 제공 www.alamy.com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흐르는 강물처럼>은 12월 10일(수) 오후 2시 미디어홀에서 성남미디어센터 상영작으로 만날 수 있다.



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이모저모

경쟁을 넘어, '가장 쇼팽다운' 음악만이 남았다

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지난 10월 20일(현지 시간) 막을 내렸다. 1927년 창설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건반 위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인 만큼, 우승자는 단숨에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다. 마우리치오 폴리니¹⁹⁶⁰, 마르타 아르헤리치¹⁹⁶⁵, 크리스티안 지메르만¹⁹⁷⁵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쇼팽 콩쿠르 우승자는 '쇼팽'이라는 이름을 넘어서는 때 비로소 더 큰 명성을 얻었다. 쇼팽 외 레퍼토리로 확장해 온 우승자들이야말로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글 조민선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사진 제공 The Chopin Institute

오직 쇼팽만 연주하는 유일한 콩쿠르

쇼팽 콩쿠르는 한 작곡가의 전 장르를 아우르는 유일한 무대다. 참가자들은 에튀드, 녹턴, 마주르카, 소나타, 협주곡 등 쇼팽의 음악 세계를 총체적으로 소화해야 한다. 예선부터 결선까지 걸리는 기간만 6개월 이상,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마다 다르지만 '가장 쇼팽다운 연주'여야 한다는 평가 기준은 명확하다.

올해 제19회 대회의 심사위원은 총 17명이었다. 심사위원장은 1970년 우승자인 미국 피아니스트 개릭 올슨으로, 대회 사상 처음으로 비폴란드계가 맡았다. 심사위원단에는 역대 우승자도 포함됐다. 당 타이 손^{1980, 베트남}, 율리야나 아브제예바^{2010, 러시아}, 케빈 커너^{1990, 1위 없는 2위, 미국}, 아르헨티나 출신 넬슨 피르네르,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 로버트 맥도널드, 폴란드 원로 피아니스트 표트르 팔레츠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릭 올슨은 "예술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며 "어떤 결과는 내게도 놀랍다. 17명의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다. 그것이 경쟁과 콩쿠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1위는 에릭 루, 쇼팽도 휩쓴 중국계 연주자

올해 결선은 유난히 치열했다. 심사위원단은 5시간 동안의 격론 끝에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를 최종 우승자로 선정했다. 루는 10년 전 조성진과 쇼팽 콩쿠르 동기로 당시 4위를 차지했고, 재도전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2위는 캐나다의 케빈 첸, 3위는 중국의 왕쯔통이었다. 세 명 모두 중국계 피아니스트로, 최근 중국계 연주자들이 세계 클래식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루는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했고, 2018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슈베르트·쇼팽·슈만·브람스의 작품이 담긴 두 음반도 발매했다. 본선 3라운드에서는 손가락 부상과 감기로 경연 순서를 조정해야 했지만, 쇼팽 콩쿠르가 재도전자에게 냉정한 평가를 해 온 기조를 뛰어넘고 우승을 차지했다. 루는 우승 직후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쇼팽 인스티튜트^{Chopin Institute}와 가진 인터뷰에서 "콩쿠르에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하면 안 된다. 음악계의 잡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직 음악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음악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본질에 충실한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전은 그에게 필사적이었다. 10년 전 쇼팽 콩쿠르 입상자였던 그가 재출전을 선언하자 주변에서 말릴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는 재도전을 택했다. 왜일까. "10년 전 저는 너무 어리고 순진했어요. 그동안 저는 변했고, 저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엔 전 세계 청중이 보는 쇼팽 콩쿠르가 적당했죠."

그의 도전은 일종의 도박이었다. 이미 경력이 있는 연주자가 대회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이겨 내고, 결국 그는 우승을 거머쥐었다. 『쇼팽: 폴란드에서 온 건반 위의 시인』의 저자 김주영 피아니스트는 “루는 테크닉, 소리, 음악성뿐 아니라 쇼팽과 솔직하고 순수하게 마주하는 태도까지 갖춘 연주자”라며 “결국 얼마나 쇼팽과 만나 자신의 영혼을 드러낼 수 있었느냐가 중요했다”라고 평가했다. 루는 ‘쇼팽 스페셜리스트’ 당 타이 손의 제자이기도 하다. 당 타이 손은 2021년 브루스 리우에 이어 2회 연속 제자 우승자를 배출했다.

제19회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루는 11월 21일 KBS교향악단과 협연, 23일 통영국제음악당, 26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무대에서 한국 팬들과 만났다. 23, 26일 양일간 리사이틀에서는 에릭 루와 함께 5위를 차지한 빈센트 웅이 무대에 올랐다.

또 제기된 판정 논란, 점수표 공개로 일단락

제19회 쇼팽 콩쿠르 역시 심사 결과를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세계 최고 영향력을 지닌 콩쿠르인 만큼 논란도 늘 뒤따르기 마련이다. 올해에는 유독 치열한 접전을 벌인 터라 최종 순위를 놓고 논란이 지속됐다. 4위를 차지한 ‘17세 별핀 소녀’ 류텐야오에 대한 과대평가 논란, 5위인 폴란드 출신 피오트르 알렉세비치의 결과가 아쉽다는 여론이 대표적이다. 이에 쇼팽 인스티튜트는 예년보다 빠르게 심사위원단의 본선 1~3라운드와 결선 점수표를 모두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에릭 루는 쇼팽 콩쿠르에 10년 만에 재도전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2위에 오른 중국계 캐나다인 피아니스트 케빈 첸(사진 왼쪽)과 3위를 수상한 중국의 왕쯔통

다. 점수표에 따르면 1위인 에릭 루와 2위인 케빈 첸은 불과 0.25점 차이로 순위가 결정됐다. 1라운드에서 에릭 루는 7위에 머물렀고, 최고점은 케빈 첸이 평균 22.93점(25점 만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라운드 이후 에릭 루가 연이어 최고점을 받으며 쪽 1위를 차지했다. 결선에서는 케빈 첸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누적 평균에서 루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내에서는 “폴란드 출신 심사위원이 적어 자국 피아니스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하지만 공개된 점수표에 따르면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폴란드 연주자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류텐야오는 화제성만큼이나 점수도 꾸준히 상위권으로, 점수표에 따르면 모든 라운드에서 4~6위권을 유지했다.

결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한국의 형제 피아니스트 이혁·이효는 단연 ‘장외 스타’였다. 형제는 나란히 본선 3라운드(20인)에 진출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콩쿠르에서 친형제가 본선에 동반 진출한 사례는 20년 만이었다. 아쉽게도 11인의 결선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공개된 채점표는 초반빙 승부를 보여 주었다. 동생 이효는 12위(20.82)로 11위와는 단 0.02점 차이였고, 형 이혁 역시 20.29점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콩쿠르 장외 스타부터 피아노 브랜드의 우승 경쟁까지

이혁·이효 형제는 결과와 별개로 뛰어난 음악성과 무대 매너,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현지 팬

을 사로잡았다. 두 형제 모두 러시아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와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공부했고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2022년 폴란드로 이주해 이혁은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 1위, 이효는 3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 쇼팽 콩쿠르 결선 진출자였던 이혁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었다. 본선 3라운드 직후 그는 “이 무대가 소중하지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느끼진 않는다. 음악에만 집중할 뿐”이라며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 줬다. 또한 대회가 끝난 후 형제는 SNS를 통해 “이번 콩쿠르 무대로 쇼팽에 대한 열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연주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승패를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고 무대를 즐기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이었다.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현지 언론 출연 요청도 이어졌다. 형제는 본선 1~3라운드에서 각자 스타일에 맞는 곡을 선택했다. 형은 소나타와 발라드에서 섬세하고 우아한 연주를, 동생은 스케르초에서 강렬한 매력을 발산했다. 두 사람은 한국어·영어·러시아어·폴란드어까지 4개 국어를 구사하며 바이올린 연주와 체스에도 능숙하다. 이효는 무대에서 현대적으로 쇼팽을 재해석했고, 조끼와 갈색 재킷으로 개성을 드러내며 관객과 소통했다. 연주 직후 백스테이지에서 서로를 포옹하며 격려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혁효 형제’는 내년 5월 28일 KBS교향악단과 폴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으로 호흡을 맞춘다.



20년 만에 형제 동반 본선 진출을 이룬 피아니스트 이혁·이효는 무대 위 뛰어난 연주력과 무대 뒤 따뜻한 형제애로 클래식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외에도 여러 장외 스타들이 눈길을 끌었다. 최종 5위에 오른 말레이시아의 빈센트 웡은 시적인 표현과 개성으로 팬들의 지지를 얻었다. 본선 3라운드 진출을 놓친 한국의 이관욱도 서정적인 연주로 주목받았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쇼팽 해석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던 콩쿠르 무대는, 단지 결과에 갇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음악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특별한 장이었다.

피아노 브랜드들의 각축전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다. 쇼팽 콩쿠르에 협찬하는 피아노 회사들은 5년에 한 번 치열한 스폰서 경쟁을 펼치는데, 올해에는 5개사가 무대에 올랐다. 미국과 독일에 거점을 둔 스타인웨이^{Steinway}, 일본의 야마하^{Yamaha}와 시게루 가와이^{Sigeru Kawai}, 이탈리아의 파지올리^{Fazioli}, 그리고 독일의 C. 베히슈타인^{C. Bechstein}이다. 참가자들은 사전 테스트를 거쳐 자신에게 맞는 피아노를 선택한다.

올해 우승자 에릭 루는 파지올리를 선택해 정상에 올랐다. 이혁은 스타인웨이를, 이효는 시게루 가와이를 골랐다. 여전히 스타인웨이는 ‘절대 강자’다. 올해 출전한 84명 가운데 43명(51%)이 스타인웨이를 택했다. 시게루 가와이는 22명, 파지올리는 10명, 야마하는 7명, C. 베히슈타인은 2명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흐름은 변하고 있다. 2010년 올리아나 아브제예바가 야마하로 우승한 첫 피아니스트였고, 2021년 우승자 브루스 리우는 파지올리를 선택했다. 올해 다시 파지올리 연주자가 우승하면서 파지올리는 또 한 번 강력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됐다.

‘바르샤바의 축제’에서 ‘세계의 축제’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 바르샤바뿐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 팬이 지켜보는 축제다. 유튜브 스트리밍과 SNS를 통해 실시간 관전이 가능하다. 결선 마지막 주자였던 일본의 구와하라 시오리의 무대는 동시 접속자 7만1,000명을 기록했다. 쇼팽 인스티튜트는 “온라인 생중계로 세계 클래식 팬을 결집했고, 역대 최다 뷰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폴란드 문화예술 TV TVP 쿨트라에서도 25만 명 이상이 결선 생중계를 시청했다.

그럼에도 콩쿠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는 여전하다.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쇼팽 콩쿠르조차 예술을 점수로 환산하는 시스템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사위원들은 주관적 취향과 개성의 영역인 음악이 점수화되는 현실에 피로감을 드러낸다. 개릭 올슨은 콩쿠르 이후 한 인터뷰에서 “결선 1라운드에서 높은 점수를 준 8명이 모두 탈락했을 때 깊은 예술적 절망을 느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주자들에게 콩쿠르는 여전히 ‘첫 무대’이자 커리어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희소한 기회인 만큼, 콩쿠르는 앞으로도 한동안 클래식 신인의 통과 의례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에 부상하는 진정성의 가치 근본이즘, 본질을 찾아서

글 이해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서울대 소비자학 학사·석사·박사. 대한출판문화협회·다산복스·리더스북·카카오페이지 등에 재직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연령·시기·코호트 효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행태 변화 및 문화자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이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며 우리의 선택 방식과 일상의 흐름을 재편하고 있다. 출근길에 펼쳐 보는 뉴스부터 업무 중 자동으로 정리되는 이메일, 퇴근 후 마주하게 되는 각종 콘텐츠까지 대부분이 AI의 추천과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 우리에게 도달한다. 2024년 전 세계 기업의 AI 도입률은 이미 75%를 넘어섰고, 국내 직장인 절반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2028년이면 일상적 의사 결정의 15%가 AI 에이전트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제시한 열 가지 키워드 중 가장 핵심에 놓인 개념은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다. 기술이 모든 판단을 주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개입과 감성, 판단력, 그리고 본질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커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는 키워드가 바로 ‘근본이즘’이다.

AI 시대, ‘진짜’를 향한 회귀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AI의 직간접적 영향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로클릭’은 소비자가 답을 찾기 전에 인공지능이 먼저 선택지를 제안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AX 조직’은 AI 도입으로 조직의 고유 업무가 재정의되며, 더욱 유연하고 자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레디코어’는 ‘준비^{ready}’가 삶의 핵심 가치^{core}가 되는 시대를 반영하는데, 이는 AI 시대의 초합리성이 생활 습관에 내재화된 현상을 뜻한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가격을 해독하는 소비 행위를 가리키며,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가 분해되는 트렌드를 말한다. ‘픽셀라이프’는 디지털 화면의 픽셀처럼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거대 서사가 사라지고 수많은 마이크로 트렌드가 공존하는 시대상을 나타낸다.

한편, 기술 중심의 흐름 속에서도 더욱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찾으려는 움직임 역시 강하게 일고 있다. ‘필코노미’는 가장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인 ‘기분’이 소비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1.5가구’는 한 개인의 자율성과 적당한 연결감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구 형태를 보여 준다. ‘건강지능’은 장수와 웰니스 시대에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작용의 중심에는 바로 ‘근본이즘’이 자리하고 있다.

‘근본이즘’이란, AI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을 만들어 내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본(眞本)’의 희소성에 가치를 두는 현상을 설명한다. 지난 10월 말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하며 개관 80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운 사실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 준다. 박물관 기념품 브랜드 ‘뫼즈’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의 주요 방문층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2030세대라는 점은 더욱 인상적이다. 늘 손안의 화면으로 세상을 소비해 온 이들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곳은 역사를 견뎌 낸 유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본, 디지털 이전부터 존재해 온 ‘진짜’가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가상이 일상화된 시대일수록 진짜의 가치는 더욱 빛나며, ‘근본(眞本)’을 향한 갈증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역사성과 희소성이 응축된 공간으로 이끌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작 <호작도>의 호랑이·까치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 '더피와 서씨'의 모티프라는 점이 알려지며, 관련 굿즈가 3만 개 넘게 판매되어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근본이즘의 문화적 확장

근본이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역사를 관통해 이어져 온 전통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통은 더 이상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숨 쉬는 유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해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궁궐과 종묘의 관람객은 1400만 명을 돌파했다. 나쁜 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바라는 마음 또한 전통에서 답을 찾아 '액막이 명태' '소금단지' 같은 전통 운세나 사주 아이템이 2030세대 사이에서 선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말린 명태에 실타래를 감아 액막이로 사용하던 옛 풍습이 현대적인 디자인과 감각을 입고 되살아난 것이다. 다이소 역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근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미니 달항아리, 한글 디자인, 자개 콘셉트의 고려청자까지 한국적인 전통 요소가 생활 속 제품으로 여전히 호응하고 있다.

또한 '원조의 힘'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LG전자는 1960년 국내 최초로 출시된 선풍기 'D-301'을 65년 만에 현대적 감성으로 복각^{復刻}했다. 원조보다 약 4분의 1 크기로 줄인 콤팩트 사이즈에 1960년대 골드스타 로고를 양각으로 새겨 넣고, 조절 기능은 다이얼 방식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USB-C 충전과 무



다이소는 합리적인 가격에 한국적인 전통 요소를 담은 생활용품을 선보이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 다이소물



LG전자는 1960년 국내 최초로 출시된 선풍기 'D-301'을 65년 만에 현대적 감성으로 복각해 눈길을 끌었다
© LG전자

선 기능 등 현대적 편의성만 더했다. 복각은 단순한 레트로와는 다르다. 레트로가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라면 복각은 과거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패키지에 적힌 'Rediscover the Original, Redesigned for Today'라는 문구는 단순한 스타일의 차용이 아닌 '원조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아디다스가 1950년 출시 운동화 '삼바'와 1966년 '가젤'을 그대로 재출시해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도 같은 이유다. 20대들이 노포를 찾고, 을지로와 충무로의 야장이 인기 있는 밤문화가 된 현상 역시 '역사와 원조^{元祖}에서 나온 신력은 진짜'라는 믿음 아래 근본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행을 넘어서는 클래식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향한 갈망은 고전 문학 판매 증가로도 이어진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176년 전 출간된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가 연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국내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고전 문학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자연과의 조화, 소박한 삶의 미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탐구하는 메시지로 여전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근본이즘은 아날로그 물건에 낭만적 가치를 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나타난다. 다양한 필사집이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밴드 DAY6는 음반과 공연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고전 읽기 열풍이 일고, 관련 도서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가사 필사집』을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25년 봄 열린 문구페어 ‘인벤탐리오 2025’에는 5일간 2만5,000명 이상이 방문했다. 전시 3개월 전 판매된 얼리버드 티켓은 3일 만에 완판됐고, 전시 기간 동안의 실제 거래액도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아날로그 감성이 디지털 우선 시대 속에서 오히려 창작과 영감의 도구로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상반기 LP와 카세트테이프 관련 가맹점 이용 건수는 2023년보다 49% 증가했다. 유선 이어폰이 번거로움과 비효율을 감수하면서도 패션 아이템으로 재조명받는 현상 역시 ‘불편함조차 근본의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변화를 보여 준다.

기억에 없는 향수, 아네모이아

철학자 발터 벤야민¹⁾ Walter Benjamin은 1936년 기술 복제를 비판하며 예술 작품의 ‘아우라(그 작품만이 갖는 고유의 존재감)’가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00년이 흐른 지금, AI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자 아우라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아우라의 핵심은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지닌 유일성이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복제의 용이함이 아니라 역사성과 진품성이다. 모나리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루브르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모나리자 앞에 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젊은 세대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아네모이아(anemoia)’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과거에 느끼는 향수²⁾를 의미한다.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 기억과 역사적 감수성에 기대어 작동하는 향수다. 2023년 한 조사에서는 미국 Z세대의 80%가 ‘기술 의존이 지나치다’라고 우려했고, 60%가 ‘온라인 접속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했다. 겪어 보지도 않았지만 돌아가고 싶다고 느끼는 그 시절은 곧 디지털 이전의 세계다. AI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서적 피로감을 키우는 가운데, 이들은 오래된 과거로부터 안정감과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아우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클레이 루틀리지³⁾ Clay Routledge는 한 기고문에서 Z세대가 과거에 매료되는 이유를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과거를 채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Z세대가 “오프라인 생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즉, Z세대의 향수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디지털 과부하와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갈망하는 일종의 저항이다. AI의 부상으로 모두의 시선이 미래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들의 관심이 역설적으로 과거로 향하는 현상은 아우라를 향한 깊은 욕구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진정성의 전이, 근본이즘의 미래

역사가 존재하는 것에는 복제할 수 없는 가치가 깃들여 있다. 빙그레가 바나나 맛 우유 50주년을 기념해 브랜드북을 발간하고, 현대자동차가 ‘포니쿠퍼’ 복원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는 어떤 기술로도 모방할 수 없는 진정성이며, 사람들의 추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본’은 과거에 머무르는 감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감성적 자산으로 기능한다.

근본이즘은 단순한 복고의 미학이 아니다. 시간 속에 축적된 진정성을 미래로 이식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이 지닌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탐구와 정교한 해석이 요구된다.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세대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AI가 무엇이든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켜켜이 쌓인 인간의 경험이 만들어 낸 ‘진정성’이기 때문이다.

THE NUTCRACKER

발레

호두까기 인형

2025.12.21 Sun 14:00 / 18: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주최·주관 (재)성남문화재단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031-783-8000 예매 www.snart.or.kr NOL ticket

SEONGNAM+

성남의 예술가
시각예술가 이지연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12·1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세계악기전시관

시각예술가 이지연

일상의 틈을 비집고 떠나는 심심한 산책



성남아트센터와 이매촌을 잇는 태원지하보도.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곳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통로를 넘어, 마음을 살피는 심의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성남아트센터와 이매촌을 잇는 태원지하보도가 10년 만에 새로운 풍경으로 시민을 맞이한다. 세월의 더께가 쌓여 있던 콘크리트 벽 위로 부드러운 색감의 선과 면이 포개져 미로 같은 길을 펼쳐 낸다. 일상의 공간에 겹겹이 새겨진 '접힌 문'들은 과연 어디로 이어질까? 직선 끝의 목적지 대신, 상상의 공간으로 길을 잃고 싶어지는 이곳에서 <심심·심뽕·한 산책>을 기획한 이지연 작가를 만났다.

글 박채림 객원기자 사진 최재우

지난여름부터 가을까지 태원지하보도에 <심심·심뽕·한 산책> 설치작업을 이어 오셨어요. 그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여름까지만 해도 태안의 창작 스튜디오에서 작업 스케치를 하며 장맛비가 그칠길 기다렸는데, 막상 설치 작업이 시작되고 나니 가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매일 날씨를 비롯한 여러 변수에 대응하고 그에 맞는 방향성을 고민하다 보니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네요. 개인전 준비를 병행하느라 더 바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태원지하보도가 가진 공간적 특성이 작가님께 영감을 주었다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지하보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둡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하보도를 지날 때마다 위치와 눈높이, 주변 풍경이 계속 달라진다는 사실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길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익숙한 공간에 통로를 내는 제 기존 작업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 후반에는 '통로'로만 보이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

는 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아침이면 주거 단지를 떠났다가 저녁이면 성남아트센터에서 이매촌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어쩌면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 작업을 통해 지하보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확장된 셈입니다.

일상의 무료함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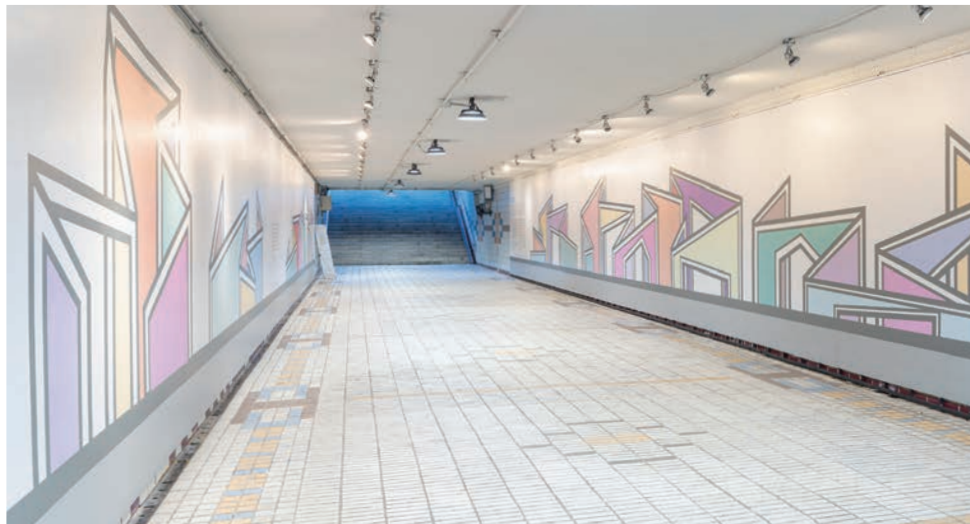
이번 작품은 외벽에 UV 인쇄 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날씨를 비롯해 정말 많은 변수가 있었어요. 기존 벽체 상태 점검 당시에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싶었는데, 결국 작품 완성도를 위해 재보수가 필요하기도 했어요. 페인트 대신 UV 벽면 인쇄를 선택했지만, 인쇄 업체도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은 처음이라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건조가 지연되면서 결국 작업 기간이 4배로 늘어났어요. 특히 날씨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다가올 봄에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에요. 마음이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재단의 배려가 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오가는 시민분들이 격려와 기대의 말씀을 많이 건네주셔서 끝까지 작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심심한 산책> <심심한 상상> <심심한 방>까지 여러 시리즈를 이어 오셨어요.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心審'이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삶에 있어 '심심한 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료하거나 심심한 상태가 마치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무척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놀기도 했지만, 마음껏 공상할 수 있는 여백이 있었달까요? 도파민이 넘치는 요즘에는 이런 심심한 순간이 무척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할 일 없는 무료함, 멈춰 있는 심심함 속에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음 심(心)에 살필 심(審)을 더해 '심심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나를 살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요.



벽화 속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접힌 문'은 지하보도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문 너머의 공간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마음을 살피는 요소로써 작가님께서서는 일상적 공간에 단순한 면과 선을 더해 상상의 공간을 내고 계세요.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제 기억 속의 공간을 좇아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벽 너머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상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길이 생겨나고 그 너머의 어딘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무한히 확장하는 놀이터 같았죠. 문과 계단을 그릴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 문을 통해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길 바라요. 같은 맥락에서 제 작품이 상상 속 공간으로 연결해 주는 일종의 통로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태원지하보도와 같이 공간에 맞춰 작품의 크기가 커지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객이 작품을 통로 삼아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면을 보는 일은 작가

로서 경험하는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작업은 평면 작업인 동시에 관객이 작품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풍경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일련의 작업이 주는 즐거움은 어디서 오나요?

저는 평면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입체화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언뜻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회화를 통해 그려 낸 선과 면이 겹치면서 생겨나는 일종의 양감(量感)이 있다고 생각해요. 면과 선이 겹이 되고 그 안에 생겨나는 여백과 틈이 있고, 관객은 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작업이 자연스럽게 점점 확장해 가요. 특히 어린이 관객들이 제가 그린 선과 면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다닐 때 일종의 해방감과 같은 재미를 느낍니다.

태원지하보도와 같은 공공미술 작품은 시간이 지

나며 색이 바래거나 흔적이 남는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물리적 변화는 회화 작품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외부 설치 작품에서는 더 크고 빠르게 다가와요. 지금까지 제가 작업해 온 외부 작품들은 대부분 설치 수명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태원지하보도 작품에서는 ‘시간의 흔적’이 큰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UV 인쇄로 시작했지만, 벽의 상태와 인쇄 품질을 고려해 페인트 채색을 더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민한 결과였어요. 시작 단계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흥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업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역 그리고 사람과 공명하며 확장하는 예술

이번 태원지하보도 작업에서 작가님께서 가장 크게 고려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무엇보다 ‘분위기’를 바꾸는 데 신경 썼습니다. 실제로 설치하는 동안 오가시던 시민분들이 이 공간이 그동안 어둡고 무서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모 역시 환경 재정비에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작업의 특징이자 장점인 밝은 색감과 단순한 이미지로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특히 지하보도가 가진 어두운 인식을 ‘밝고 경쾌한’ 감정으로 옮겨 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작업 과정의 안전에 신경 썼습니다. 이걸 어린이 전시를 경험하며 생긴 습관이기도 해요. 특히 외부 설치 시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작품이 훼손되는 한이 있어도

관객이 되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 공간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 시민들이 어떤 예술 경험을 하길 바라시나요?

무엇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발견하고 궁금해하는 순간을 만나길 바랍니다. 겹겹이 새겨진 문을 지나 각자 궁금해하던 곳으로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림 앞에 서서 상상하던 공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느끼는 순간의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작업이요. 누군가에게는 달걀처럼 보일 수 있고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제 작업이 저마다의 상상으로 이어지는 작고 소소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작가님께서 가장 골몰하시는 화두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 개인 전시를 통해 ‘틈’과 ‘겹’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각각 <시간의 틈_선을 타고 가는 시간>과 <공간의 겹_선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두 작업 모두 공간 안에서의 ‘시간’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또 이번 <심심한 산책>에서 보여준 ‘접힌 문’의 모티프는 2023년부터 이어 온 작업인데요, 지난해부터는 그동안의 조형성을 해체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작업에서 반복되던 방식과 요소에서 탈피해 저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벽화는 디지털 이미지를 벽면에 인쇄하는 UV 프린팅 작업 후, 벽의 상태와 인쇄 품질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작가가 직접 페인트로 덧칠해 마무리했다

공공미술은 시대와 도시의 맥락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작가님은 현재의 공공미술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다양한 공공미술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매력적인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의 교감과 교류를 통해 ‘시간’을 나누는 방식의 공공미술도 등장했지요. 물론 비용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파크에 설치된 애니시 카푸어Anish Kapoor의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가 인상적이었어요. 둥근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된 설치물인데 재료의 특성 때문에 주변 풍경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기죠. 다들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춰 보려고 작품에 다가 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작품에 접근하고 궁금해하는 점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도

시 안에 그저 장식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참여와 이야기를 통해 장소의 맥락을 잇는 공공미술 작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성남문화재단의 <모든예술31 성남>에 참여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지역예술인이 새로운 작업을 실험하거나 발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기회입니다. 이전에 2018~19년 청년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놀이터 프로젝트’를 실행한 경험도 있는데요, 예술인으로서 그때의 경험이 큰 자양분이 되었어요. 기존과는 다른 기법을 실험해 보거나 다양한 예술가와 협업할 수 있었어요. 또 후속 작업에서 현재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지요. 이처럼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성장을 지역이 응원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12.18 춤추는 빈, 왈츠와 오페레타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 정한결, 소프라노 박소영, 테너 김민석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 / '걱정없이' 폴카

레하르 <금과 은> 왈츠 / <박쥐> 중 '나리 정말 웃으세요 (웃음의 노래)'

플로토 <마르타> 중 '꿈과 같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 '봄의 소리' 왈츠 / 트라치 트라치 폴카

레하르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 <주디타> 중 '뜨거운 내 입술의 키스' /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11시 콘서트홀 (2025년 3월~12월, 총10회)



Yang

© Jino Park

Violin Recital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2025.12.6.sat
3:00pm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
1975-2025

Seonam 20th Anniversary

성남문화재단
SEONAM CULTURAL FOUNDATION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Calendar

Map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 2025년 12 · 2026년 1월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5.12

◎ 오페라하우스 ① 콘서트홀
② 앙상블시어터 ③ 성남아트리움 ④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Sunday |
|--------|-----------------------------------|--|--|--|--|--|
| 1 | 2 | 3 | 4 | 5 | 6 | 7 |
| | ② C&K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00) | ■ ④ 무료 정기 상영 <델마와 루이스>(14:00) | | ③ 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③ 남진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17:00) ■ ③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15:00) ② 아트페어링(19:00) | ③ 슈테른 필하모닉 노블레스Ⅲ with 일리아 라쉬코프스키(19:00)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③ 성남시립교향악단 & 성남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19:30) | ③ 성남문화예술 페스티벌(19:00) ■ ④ 클럽 그림책 콘서트(16:30) ■ ④ 무료 정기 상영 <호르는 강물처럼>(14:00) | ③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19:30) | ② 제22회 정금란 무용제(19:30) | ③ 어반자카파 콘서트 <겨울>(18:00) ■ ③ 앙트레 콘서트 <플라잉 심포니>(15:00) ② 마이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7:00) ④ 캐리와 슈퍼콜라의 싱어롱 뮤직쇼 (11:00, 14:00, 16:30) | ③ 카즈미 타테아시 트리오 <크리스마스, 재즈를 만나다>(15:00) ② 고우센텀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6:00) ④ 캐리와 슈퍼콜라의 싱어롱 뮤직쇼 (11:00, 14:00)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② Two Playing Voyage V(19:30) | | ■ ③ 마티네 콘서트(11:00) | ③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② 가족뮤지컬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선물>(10:30, 13:30, 16:00) | ③ 파리나무십자가 소년소녀합창단 특별 초청 공연(19:30) ② 가족뮤지컬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선물>(11:00, 14:00, 16:00) ■ ④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듀오 리사이틀(17:00) | ■ ③ 발레 <호두까기 인형>(14:00, 18:00) ③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아름다운 동행>(19:30) ② 가족뮤지컬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선물>(11:00, 14:00, 16:00)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 ■ ③ 앙트레 콘서트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19:30) ④ 라이브 가족 뮤지컬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14:00, 16:00) | ④ 라이브 가족 뮤지컬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11:00, 14:00, 16:00) | | ③ 조정석 콘서트 <SHOW: SIDE B>(18:00) ③ 아듀 2025 오페라 갈라 콘서트(15:00) ② 어린이 뮤지컬 <Let It Go> (11:00, 14:00, 16:30) | ③ 조정석 콘서트 <SHOW: SIDE B>(15:00) ② 어린이 뮤지컬 <Let It Go> (11:00, 14:00, 16:30) |
| 29 | 30 | 31 | | | | |
| | ② 트리오 솔러스(19:30) | ③ 부활 40주년 콘서트(19:30) ■ ③ 성남아트센터 제야음악회(22:0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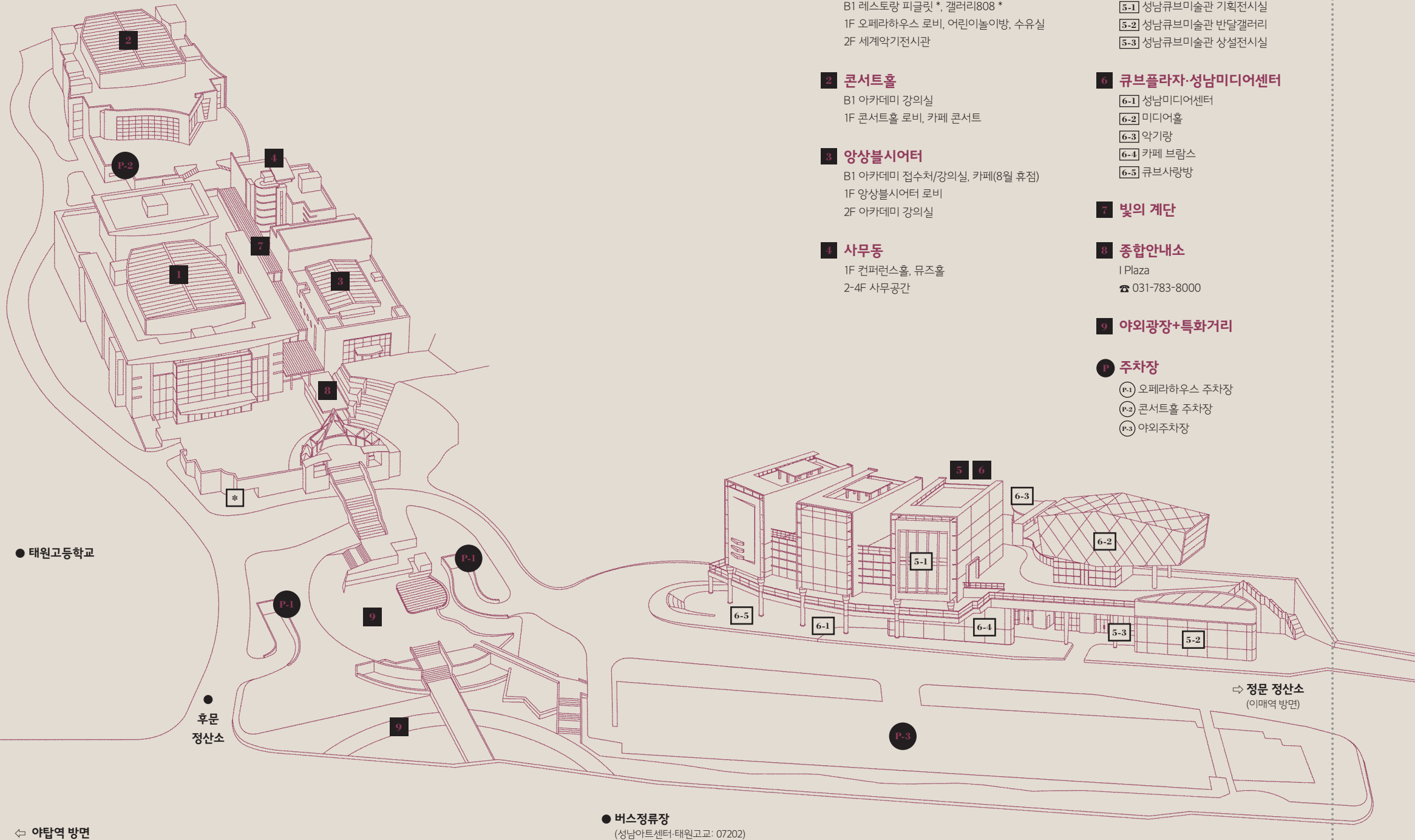
|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 |
|----------------------------------|----------------------|-------|
| ■ 베르메르 레플리카전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 | 12월 12일~2026년 3월 15일 | 기획전시실 |
| ■ 2025 성남작가조명전Ⅲ <정보영: 그림 속의 그림> | 10월 24일~12월 21일 | 반달갤러리 |
| ■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Ⅱ <시대의 취향> | 10월 24일~12월 21일 | 상설전시실 |

* 전시 관람 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 갤러리808 | |
|--|-----------------|
| 2025 경기향토작가 초대전 <비상> | 12월 2일~12월 10일 |
| 제4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통미술·공예 부문 / 디자인·현대공예 부문 | 12월 12일~12월 26일 |

* 전시 관람 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8월 휴점)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5-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5-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5-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6-1] 성남미디어센터
[6-2] 미디어홀
[6-3] 악기랑
[6-4] 카페 브람스
[6-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8 종합안내소

1 Plaza
☎ 031-783-8000

9 야외광장+특화거리

P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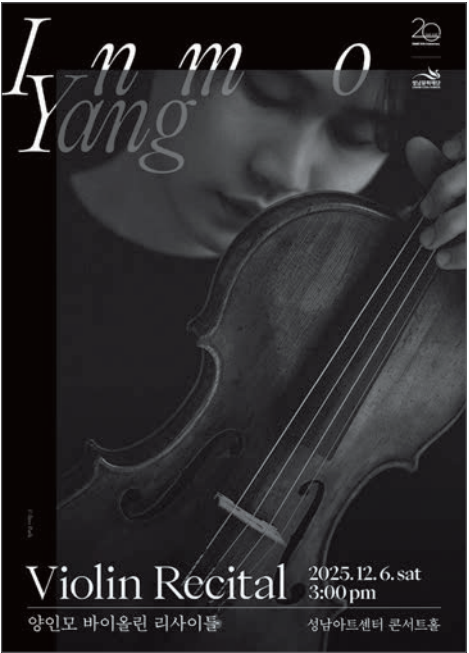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P-2] 콘서트홀 주차장
[P-3] 야외주차장



베르메르 레플리카전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

빛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명작들을 레플리카로 만나는 전시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이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베르메르 사후 3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가 평생 남긴 단 36점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기획전이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 따르는 여인>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화를 감상하는 한편, 그가 빛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알려진 광학 장치 '카메라 옵스큐라' 체험, 작품 속 공간을 재현한 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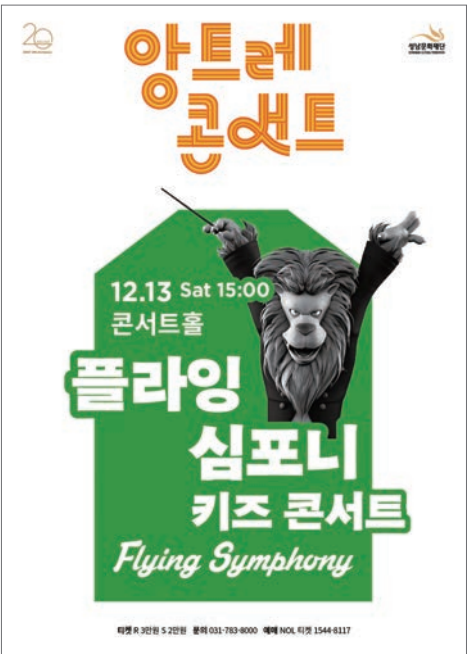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12월 12일(금)~2026년 3월 15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티켓 성인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문의 031-783-8142~9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K-클래식 대표 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솔로 리사이틀을 갖는다. 바로크 시대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 중 걸작으로 손꼽히는 텔레만의 <무반주 바이올린 환상곡> 전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로크 음악과 역사주의 연주, 현대 악기를 아우르는 양인모의 비르투오소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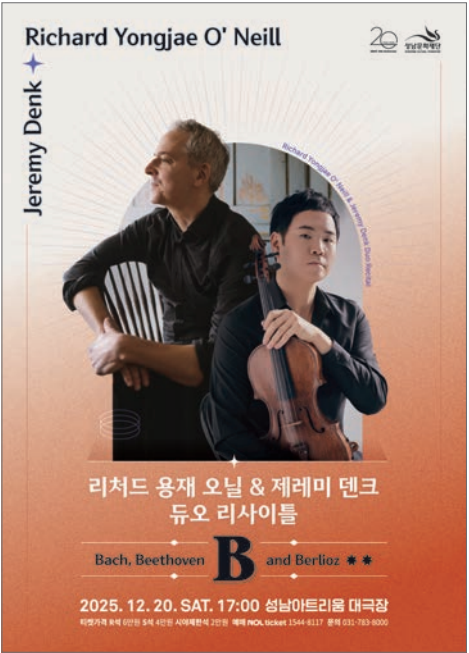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12월 6일(토) 오후 3시
티켓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문의 031-783-8000



아트레 콘서트: 키즈 콘서트 <플라잉 심포니>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콘서트 <플라잉 심포니>는 정통 오케스트라 연주에 3D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이 결합한 무대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과의 환상적인 첫 만남을 선사한다. 1부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2부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으로 구성되며, 지휘자 이병욱이 이끄는 디토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듀오 베리오자가 함께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12월 13일(토) 오후 3시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듀오 리사이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가 6년 만에 듀오 리사이틀로 성남아트리움을 찾는다. 공연은 'B'를 부제로, 바흐, 베토벤, 베를리오즈에 이르는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 명곡들을 아우른다. 비올라 솔로와 피아노 솔로, 비올라와 피아노의 협연, 그리고 교향곡적 작품까지 비올라의 깊은 음색과 섬세한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진 진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12월 20일(토) 오후 5시
티켓 R석 60,000원
S석 40,000원
문의 031-783-8000



발레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시즌 대표 공연인 발레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 호두 왕자와 함께 눈의 나라로 떠나는 환상의 여정이 성남아트센터에서 펼쳐진다. 아름다운 음악과 눈길을 사로잡는 의상, 세계 각국의 춤과 박진감 넘치는 군무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작품이다. 와이즈발레단이 기존 작품에 역동성과 새로운 해석을 더해 무대를 이끈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12월 21일(일) 오후 2시, 6시
티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



앙트레 콘서트: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영화음악과 클래식, 캐럴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관객에게 따뜻한 음악 선물을 선사한다. 지휘자 최수열과 한경 arte오케스트라가 캐럴 '실버벨', 리로이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시간을, 세계적인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작을 연주하며 색다른 음색의 무대를 선물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12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티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



성남아트센터 제야음악회

한 해의 마지막 밤은 음악이 전하는 올림과 함께 보내는 건 어떨까. <성남아트센터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장운성이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소프라노 황수미, 테너 박승주가 특별한 순간을 함께한다. 특히 올해에는 관객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12월 31일(수) 오후 10시
티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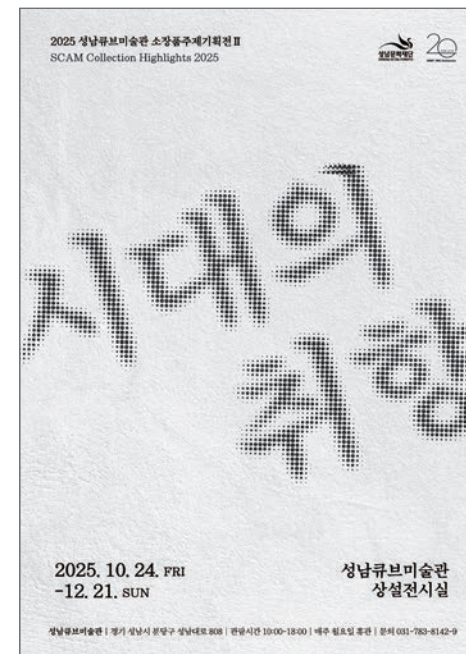


2025 성남작가조명전III

정보영 <그림 속의 그림>

올해 세 번째 성남작가조명전 <그림 속의 그림>은 빛과 공간, 시간의 경계를 탐구하며 그 안에 드러나는 감각적 구조를 회화로 구현하는 정보영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섬세한 명암의 흐름과 현실을 재구성하는 장면들 속에서 캔버스 너머의 현실과 환영, 존재와 부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경계를 조용히 생각해 보게 한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10월 24일(금)~12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3~9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II <시대의 취향>

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선보이는 소장품주제기획전이 올해 두 번째 전시로 <시대의 취향>을 선보인다. 개인의 기호를 넘어 시대가 만들어 낸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경향을 반영하는 '취향'을 주제로, 일상의 소소한 장면부터 사회적 문제의식을 드러낸 작품들을 소개한다. 김호민·이현배·이상엽 등 각자의 시대적 감각과 예술적 시각으로 포착하고 시각화한 회화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10월 24일(금)~12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Richard Yongjae O' Neill

Jeremy Denk



Richard Yongjae O' Neill & Jeremy Denk Duo Recital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듀오 리사이틀

Bach, Beethoven

B

and Berlioz **

2025. 12. 20. SAT. 17:00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가격 R석 6만원 S석 4만원 시야제한석 2만원 예매 NOL ticket 1544-8117 문의 031-783-8000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온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연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산성이엔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워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철쭉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김상한/오다영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조남숙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상우/강지선 (주)인베디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서규/황혜숙 (주)팍셀플러스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웍스 이사

탄천회원

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육자 전 (주)씨너스 회장

철쭉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교육주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복기 전 한국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회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준순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중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전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전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전 총재
마희화/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크리트(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의명/손외자 치과의사 / 한국화가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오종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유성희/유성은 (주)인흥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이윤이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인선/채인호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임현주/김윤선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스엠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S패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전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線과色) 전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은희/연형모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탁순희 전 대표 이사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홍애자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까지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중농원갈비 대표
김용태 하팅코리아(주) 대표이사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박미영

백성정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오미주 성악가
우주호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이기영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희재 지휘자
조현우 변호사
최진옥

명예회원

박명숙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강효주 부회장 황광석, 김상일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최은희, 신상진, 윤영상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세계악기전시관

지구 반대편의 낯선 악기들을 만나다

일요일의 늦은 밤, 자고 일어나면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해서 감기는 눈을 비벼 가며 유튜브 숏폼 영상을 넘겨 보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세계의 특이한 악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낯설고도 신기한 악기들의 소리와 모양에 눈이 번쩍, 도파민이 폭발!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해 기절하듯 잠들 때까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악기 영상에 빠져들었고, 그렇게 한동안 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난생처음 보는 악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사진 최재우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신기한 세계 악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 성남아트센터 안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층에 있는 세계악기전시관이랍니다. 이곳은 아시아·오세아니아관, 아메리카관, 아프리카·유럽관 그리고 체험관 등 총 4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지역의 전통 악기부터 상상도 못 했던 재료로 만들어진 이색 악기들까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험관에서는 동물의 가죽과 뿔로 만든 아프리카 하프 harp와 서아프리카의 타악기 켄베 djembe, 호주 북부 원주민의 관악기 디저리두 didjeridu 등 다양한 민속 악기를 직접 만져 보고 소리를 내며 세계의 음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육으로도 안성맞춤이죠?

세계악기전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누구나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는데요, 단, 10명 이상 단체 관람이나 전시 해설, 체험관 이용은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세계악기전시관 이용 안내 031-783-8153(매주 일요일·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2025 NEW YEAR'S EVE CONCERT

성남아트센터 제야음악회

지휘 장윤성

연주 성남시립교향악단·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연브라스밴드

협연 박규희 기타 황수미 소프라노 박승주 테너

2025. 12. 31.(수) 22:0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